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제주지역사
교수-학습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강 민 희

2018년 2월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제주지역사 교수-학습 방안 연구

지도교수 전 영 준

강 민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강민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12월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Jeju Local History Class under the
Middle School History Education Curriculum

Kang, Min-hui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2.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II.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제주사 서술 분석	8
1. 중등 사회과(역사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특징	8
2.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제주사 서술 분량 및 분석	13
III. 중등 역사교육에서 제주지역사 활용 방안	40
1. 역사수업 반영을 위한 제주지역사 검토	40
2. 제주지역사를 활용한 답사 및 현장수업	69
IV. 결론	78
참고문헌	82
<Abstract>	87
<부록>	90

<표 목차>

<표 1> 중학교 『역사1』 교과서의 제주 관련 서술 비율	14
<표 2> 중학교 『역사2』 교과서의 제주 관련 서술 비율	15
<표 3> 선사시대 서술 및 삽화, 그림	21
<표 4> 대몽항쟁 서술 및 삽화, 그림	25
<표 5> 제주 4·3사건 서술 및 삽화, 그림	29
<표 6> 기타내용 서술 및 삽화, 그림	32
<표 7> 최근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과목 수업 시수의 비교	42
<표 8> 교과서 단원별 지역사교육 내용 구성	43
<표 9> 도내 주요 항일운동	60
<표 10> 수업지도안(예시)	66
<표 11> 중학교 『역사부도』의 삽화 및 그림	68
<표 12> 중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70
<표 13> 답사활동 연간 계획(예시)	71
<표 14> 답사보고서(예시)	72

<그림 목차>

그림 1) 빌레못 동굴 유적 근경과 입구 44

그림 2) 고산리 유적 입구와 안내판 45

그림 3) 귀덕 환해장성 49

그림 4)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기념탑과 발상지 57

그림 5)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과 해녀박물관(제주시 하도리) 59

I. 서론

1. 연구목적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 고조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에 선행되는 국가의 정체성과 특수성에 대한 사고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십 수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비판이나, 김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발행하려는 정치적 시도 등에 대한 것 역시 역사적 사고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고등학교 단위의 역사교육에서부터 기성세대의 역사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도에 비하여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역사수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 단편적 지식 전달을 위한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은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역사수업은 학습자들에게 암기 과목으로 인식되면서 학습부담 또한 상당한 교과로 이해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의 수행이 지속되어 온 것은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위한 역사적 사고력의 확장에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역사를 형성·발전시켜 온 주체는 인간이며, 남겨 놓은 과거의 사실들을 역사가들이 해석하고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중·고등학교의 역사교육은 사실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공정한 판단력을 기르며,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¹⁾ 데 교

1)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16쪽.

육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교육의 목적은³⁾ 첫째, 역사교육이 갖는 교훈적인 성격이 곧 역사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역사를 배움으로써 인간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현재나 미래의 활동과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유용한 교육을 얻기 위해 역사를 배워야 한다. 둘째, 역사가 타민족과 구별되는 고유의 유산으로 역사교육을 통해 민족의 동질감, 민족적 주체성을 확장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⁴⁾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큰 흐름으로 놓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역사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수업은 역사교과서의 지식 내용 전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여 역사과목을 학습함으로써 중앙사 위주로 서술된 역사교과서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알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입시교육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역사교과서 이외의 지역사를 학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수와 적합한 교재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사 학습은 도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역사는 다양성의 주체와 소재로서 이미 역사학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연구에서 지방사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⁵⁾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지역사 역시 지역의 변화와 계속성,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인과관계, 발전 등과 같은 시간관련 개념들을 중시한다. 이와 같

2)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역사』, 2016. 역사를 학습하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역사적 배경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유추하여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구체적인 역사교육의 목표이다.

3) ‘역사’는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이 발전해 온 과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현재와 미래 사회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 지역이 역사 발전 과정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인간의 삶이 향상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교육부, 위의 책, 2016).

4)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2, 39-40쪽.

5) 고석규, 「지방사란 무엇인가」, 『지방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08, 13쪽.

은 지역사 교육은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서로 연결시켜 배우는 교육활동이며, 지역사적 사실들을 시간적 변천 과정으로 이해하는 활동이다.⁶⁾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습자 스스로 역사학습의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반경에 있는 가까운 역사,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등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료를 통한 역사학습을 기존 역사교육의 범위에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하면 보다 생동감 있고 학생주도적인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⁷⁾ 이처럼 지역사 학습은 자기 고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교과교육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당면한 지역 단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뿐 아니라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 또한 장점의 하나이다.⁸⁾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역사교과서에는 제주지역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나 서술 내용이 부족하다. 제주지역의 학생들이 역사를 학습할 때 자신의 속한 지역의 역사문화를 다양하게 학습할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제주와 관련된 역사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축적, 학습지도 방안 등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역사학습의 동기를 고취하여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흥미를 증폭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9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2012년 8월 31일 검정본)에 서술된 제주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과 연관되는 학습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단원별로 서술 분량, 서술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지도자료, 탐구활동, 보조자료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사 학습의 부족한

6) 임호민, 『지역사 자원의 교육자료 활용방안 탐색』, 서경문화사, 2009, 10쪽.

7) 예를 들어 중학교 『역사1』 수업에서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단원을 학습할 때, 제주도 고산리, 삼양동의 선사 유적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보다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역사2』의 ‘III.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에서는 현대사의 질곡을 이해함에 있어 제주에서 일어났던 제주 4.3사건을 학습하게 하면 현대사의 발전 과정에 보다 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인된다.

8) 조상제,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교육」, 『역사교육』 68, 1998, 133쪽.

부분과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 활용하는 심층적 탐구활동이나 방과 후의 시간을 활용하는 현장학습·체험학습 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제의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지도안, 탐구활동 등을 개발,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지역사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초·중·고등교육을 막론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⁹⁾ 지역사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학습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 대상을 확인하여 보면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부산, 인천, 대구 등 전국 지역에 대한 연구가 고루 진행되었고, 특히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여타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다른 지역 연구도 도 단위의 연구는 거의 없었고, 시·군 단위로 세분화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정 지역의 역사적 자료로 학습방안을 제시하다보니 특정 시기로 한정되기도 하고 지역사 학습이라는 주제를 내세웠지만 특정 지역의 자료 보다는 일반적인 지역사 학습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도 있었다.

둘째는 수업형태, 즉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¹⁰⁾ 위와 마찬가지로 지역

9) 김경민,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자료의 활용에 대한 연구 : 경기도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4; 김애경, 「고등학교 국사교육에서의 서울지역사 자료 활용방안 : 백제 한성시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선도, 「의정부·양주 지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학교 지역사 교수학습 지도방안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김상태, 「중학교 국사교육에서 충북 지역사 학습」,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황선희, 「고등학교 국사교육에서 지역사 학습자료 활용방안 :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장세영, 「중학교 국사교육에서 지역사 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 강동·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김정희, 「중학교 국사 교육과 지역사 학습 :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2010; 정덕용, 「불교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사학습 방안연구 : 충남지역의 탐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김란주, 「지역사 자료를 활용한 현대사 수업 :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10; 석병배, 「초등학교에서 지역사 자료로 역사하기 :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도윤지,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3.

을 특정한 연구 중에서도 특히 수업형태를 제안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지역사 학습을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수업형태를 제안하였다. 하나는 분산적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제적 접근방법이다. 전자는 연간 진도계획에 따라 통사학습 과정에서 본시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고 계속 본시 학습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다. 교과서의 본시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지역사 학습계획을 세우고 교과서의 편제대로 내용에 맞춰 학습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많은 연구에서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고 이에 맞는 지역사 관련 자료를 제시해 보충학습으로 지역의 역사를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교과서의 내용에 맞추어 보충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내용이 한정적일 수 있고, 수업 시간 제약으로 인해 심도 있는 지역사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후자인 주제적 접근방법은 지역사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내세워 지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역사적 창의력과 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지역사 자료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많은 연구에서도 주제적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업형태를 제안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현장답사, 민속놀이체험 등의 수업, 역사신문 만들기, 극화학습, 토론수업의 제안, 현장교육을 통한 역사탐방, 유비쿼터스 활용방안 등이 있다.¹¹⁾

셋째는 제주 지역의 자료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연구이다.¹²⁾ 이와 관련해서는

-
- 10) 김연성, 「향토사 연구사적 검토와 향토사 교육방안 연구 : 중학교 국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1; 강을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 장성지역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동익, 「고등학교 국사교육을 위한 태안 지역사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명정혜, 「제7차 교육과정의 ‘지역화교육’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 근대 목포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정수련,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연구 :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인영찬, 「보령지역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고등학교 역사교육 방안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안형주, 「중학교 국사교육의 향토사학습 지도방안 : 전주 지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최난숙,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중학교 국사 수업 방안 연구 : 경기도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이재우, 「고양시 향토교육의 학습 방안 : 중학교 국사수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 11) 송춘영, 「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27~28쪽.
- 12) 고효숙, 「향토사학습의 내용조직과 학습방법 :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4; 고효호, 「아동의 흥미에 기초한 향토사 수업모형의 구안 및 적용 : 제주도 지역화 교과서의 향토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7; 한태국, 「제주지역 향토사 학

제주의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은미는 조선 후기 제주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문화상을 정리한 「탐라순력도」를 기반으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국립제주박물관의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탐라순력도」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특화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을 제시했다.¹³⁾ 이를 위해 전시 감상, 학교 연계,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시켜 하나의 지역사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고안나는 「제주의 신화」를 지역사 학습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역사적 가치로서의 제주 신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방안을 제시했다.¹⁴⁾ 초등학생에 중심을 두고 거꾸로 읽기, 두 겹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등을 제시하였으며, 제주신화를 활용한 지역사 수업을 실행해보고 교사와 학생의 인지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지역사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향후 많은 연구가 요청됨을 주문하였다. 이 밖에도 제주 4.3사건, 유배문화 등과 같은 내용을 교육콘텐츠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연구는 있지만 제주지역의 지역사 자료를 활용한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제주 지역사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점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그동안 사회과(역사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후부터

습의 실태와 개선방안 :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라대학교 석사논문, 2002; 고희주,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장재훈,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 : 초등학교의 향토사 교육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고범석,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한지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강은실,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문은아,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지역화 학습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주민속촌박물관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13) 한은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14) 고안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목표와 교육활동을 정의하고, 필요한 지식 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온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는 역사교과의 흐름을 통시대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역사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반영된 지역사 학습에 관한 내용, 시대가 변하면서 역사교육과 지역사 학습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방향성의 검토는 당면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교육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새롭게 편찬되고 있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그동안 사회과에 포함되어 왔던 역사과의 교육목표와 활동을 독립 교과의 범주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역사교과서(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본)에서 제주와 관련된 서술 분량과 내용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사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중점적·보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중앙사와 지역사의 관계에서 소홀하기 쉬운 특정 사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전체 역사의 이해를 확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학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역사교과에서 서술되거나 학습되는 정도를 확인하여 지표로 삼고자 함이다.

III장에서는 앞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시연되고 있는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지역사와 전체사의 연결고리를 찾도록 하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의 1년 시수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학습시수를 편성하고 대단원 또는 중단원의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수업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II.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제주사 서술 분석

1. 중등 사회과(역사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특징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돕는 자료집이다.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학습에 관한 교과서와 교육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과 사회과, 역사과 교육과정의 내용 속에서 지역사 학습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개편은 해방 후 교수 요목시기(1946~1954),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4), 제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8), 제5차 교육과정기(1988~1992),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9), 이후 개정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교육과정별 역사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수요목기에는 우리말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국사를 교과목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정치사 중심으로 가르칠 것을 권장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 고등학교는 문화사를 강조하여 중·고등학교 간에 계열성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지역성을 강조하여 각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 경험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중학생은 정치사, 고등학생은 생활사를 강조했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사과목의 독립교과화, 계열화의 문제를 요구하여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의 단원 축소, 고등학교의 단원 증가가 이루어졌고 통사적인 서술을 지향하였다. 고등학교는 경제사, 문화사, 사상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지방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하였다. 고등학교는 문화사, 사상사, 사회경제사 분야를 중시하면서 분류사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표방하고 6단원에서 8단원으로 증가하였다.¹⁵⁾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제7차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위해 제6차

15) 전영준,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사학과, 2016, 34-48쪽.

교육과정부터 최근 폐기된 2015년 개정교육과정까지의 역사과 학습목표 등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 학습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다. 사회과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모습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우리의 현실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로 “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상호 관련시켜 이해하게 한다”와 같이 통합적인 사고를 지향했다. 또한 “다. 각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게 하고,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고 하여 지역사 학습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본다.

내용체계에서도 1학년 국사 부분에 ‘지역의 내력과 역사자료’를 명시하고 지역의 지리적 환경, 역사, 정치·경제·사회 기구 등을 조사함으로써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정리·표현하는 기능과 능력을 기르도록 했고 현대생활의 역사적 배경, 유물, 유적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역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세부적 국사영역에서는 “역사 학습의 의의와 방법을 파악하게 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국사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며, 향토사 학습을 통해 향토애를 기르도록 한다”고하여 지역사 학습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다.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는 “바. 지역 사회의 특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자료뿐 아니라 지역화 자료를 마련하여 지역화 자료를 마련하여 지도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는 창의적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차. 각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이 자연 환경 및 산업상의 특색뿐만 아니라,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측면도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지도한다”고 하면서 지역사 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¹⁶⁾

제6차 교육과정이 갖는 특징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되었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학교가 직접 편성

16)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1992.

하고 실행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교육부(국가 수준 교육과정)-시·도 교육청(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학교(학교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으로 각 학교와 교원이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인간상은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세부 과목의 내용에서는 ‘국사’의 성격을 “우리 민족의 정신과 생활의 실체를 밝혀 주는 과목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시켜 주는 구실은 한다”고 정하면서 국사과목을 배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역사 학습 또한 우리 지역의 정신과 생활을 밝혀주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함양시켜 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내용의 계열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사건 또는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상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파악함에 힘쓰도록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의 한국의 근현대사에서는 선택교과라는 제한이 있으나, 다양하고 역동적인 근·현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여 살아온 민족의 삶을 주체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고 있는 민족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¹⁸⁾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한국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별로 분류사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시대별로 세계사적 이해 단원을 설정하여 한국사와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역사적인 사고력을 신장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근·현대사’ 분야를 심화 선택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한국사를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단위학교에서 만들어가는

17)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1997.

18) 박재후, 「교육과정 개편과 국사교육의 변화 :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4쪽.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량활동 운영에서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여 학교의 재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교과 내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켜 국사와 세계사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나누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인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¹⁹⁾이라고 명시하였다. 특히 학년군, 교과군의 도입이 시행되면서 교과별 수업시수를 20%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기존의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편성하도록 개정되었다. 역사과목에서는 10학년이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역사교과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었다.

역사 과목 목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 세부 목표로 “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지역사 학습과 관련해 보면,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과거의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역사회 학습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단위 편제 수정이 이루어졌다. 중학교 『역사(하)』에서 대단원 ‘민족 운동의 전개’를 추가시켜 근현대사 부분을 확대하였고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기존의 대단원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을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로 수정하였고,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대단원을 추가시켜 전근대사를 확대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를 추가하고 ‘세계와 우리의 미래’를 삭제하여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하였다.²⁰⁾

2011년 부분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와 적정화, 국가·

1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12. 17.

20) 전영준,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사학과, 2016, 66쪽.

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고교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고등학교 『한국사』의 필수과목화이다. 구체적인 역사과 교수·학습 활동에서 ‘역사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박물관 탐방, 지역의 역사 문화 현장 탐방 등의 역사 체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자기 지역과 관련된 지역의 역사를 배울 때는 지역의 인물을 선정하거나 일화를 발굴하여 가르치는 방안 등 교사의 관점과 학생의 수준과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면서 지역사 학습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문화 창조의 능력을 함양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각 단원별 현장답사 형식의 읽기자료 또는 탐구 자료 활동이 추가 되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로 현재는 역사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미뤄졌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나타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드러내었다. 이전 교육과정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중학교 과정에 자유학기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모든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체험활동 강화했다는 점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내용으로 ‘공통과목’을 구성하여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하되 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했다는 점이다.²¹⁾ 특히 고교 교과(군)별 필수이수 단위에 한국사(6단위)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한편, 제주지역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에 발표된 ‘제주지역교육과정’에서 제주 지역사 학습에 대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육의 강조점으로 “마. 제주 선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조상들의 삶 속에 형성된 수놓음과 즆냥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에 충실하도록 한다”, “바. 화해와 상생의 4·3 및 평화교육의 충실로 평화의 섬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제주의 전통문화, 역사 등의 학습을 중

21) 교육부 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09. 24.

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부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역사를 배울 때에는 지역의 인물을 선정하거나 일화를 발굴하여 가르치는 등 교사의 관점과 학생의 수준과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역사과 교육과정의 변화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학습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역사과목의 목표도 역사인식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곳곳에 보인다. 또한 단편적인 사건의 학습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되고 최신 학계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편제 변화 노력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 학습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 “향토사가 민족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향토 문화에 대한 애호심을 가지게 한다”는 목표는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 달성 계획 등이 없고, 그 이후에는 지역사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다양하고 세계적인 흐름에서 역사를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라면 당연히 지역사의 내용부터 학습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빠진 채 종합적인 역사인식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규교과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역사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업시간에서의 보조자료 활용, 답사 및 동아리활동 등으로 지역사 학습을 늘려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제주사 서술 분량 및 분석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본)는 모두 9종이다. 이들 교과서의 전체 단원에서 제주와 관련된 서술 분량의 배정은 전체 분량의 1% 내외로 1~6쪽 이내에서 편성되고 있다. 『역사1』교과서에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1%의 비율에 배정되어 있으며 전체 분량의 3~6쪽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의 선사시대 구석기·신석기 유적,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대몽항쟁과 관련된 단원에서 제주관련 내용이 서술되고

있으며 이 밖에 삼국시대 대외무역과 관련된 내용, 조선시대 향교 등에 관한 내용이 보충적으로 소개되었다. 각 교과서의 제주관련내용의 서술 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중학교 『역사1』 교과서의 제주 관련 서술 비율²²⁾

출판사	단원(숫자, 쪽)						비율(%) (해당쪽/ 전체쪽)
	I	II	III	IV	V	VI	
교학사	18	-	-	128~130	167	-	2.13 (5/234)
금성출판사	21,23	-	-	142~143	-	-	1.16 (4/343)
동아출판	17	-	81	109	-	169~170	1.65 (5/302)
미래엔	-	-	-	116,124	-	-	0.65 (2/305)
비상교육	21,23	-	-	134~135	-	202	1.51 (5/329)
좋은책신사고	20	-	117	124,126,141	-	200	1.82 (6/336)
지학사	18,20	-	-	130~132	-	201	1.78 (6/336)
천재교과서	19	-	-	132	156	202	1.19 (4/336)
천재교육	21	-	-	128, 132	-	-	0.89 (3/336)

『역사2』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전체 분량의 1%를 넘지 못하고 0.4~0.7%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되었다.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Ⅲ.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3·1 운동과 관련된 서술이나 현대사 단원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서술이 보인다.

22) <표 1>에 제시한 각 단원의 주제는 I.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II.삼국의 성립과 발전 III.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IV.고려의 성립과 변천 V.조선의 성립과 발전 VI.조선 사회의 변동 VII. 통일 제국의 등장 VIII.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IX.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이다. 그러나 VII, VIII, IX 단원은 세계사 관련 부분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중학교 『역사2』 교과서의 제주 관련 서술 비율²³⁾

출판사	단원(쪽)				비율(%) (해당쪽/ 전체쪽)
	I	II	III	IV	
교학사	-	-	87	-	0.47 (1/210)
금성출판사	-	-	99	-	0.44 (1/227)
동아출판	-	-	81	-	0.45 (1/218)
미래엔	-	-	78	-	0.50 (1/199)
비상교육	-	-	88	-	0.42 (1/237)
좋은책신사고	-	-	95	-	0.40 (1/248)
지학사	-	-	85	-	0.44 (1/224)
천재교과서	11	49	77	89	1.78 (4/224)
천재교육	-	-	81	-	0.44 (1/223)

이와 같이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단순 분량 계산이어서 교과서에서 제주 관련 서술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한 쪽의 분량에서도 한 두 문장으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쪽 전체가 제주와 관련되어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비교에도 불구하고 제주와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 전체 분량의 1% 내외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주 지역 학생들이 역사과목을 학습하면서 자신들의 지역역사와 역사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연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제주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수업 내외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주지역사를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교과서에서 서술한 제주지역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제주지역사 학습내용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서 분석한 중학교 『역사1』, 『역사2』 교과서에서 서술된 제주 관련 내용에 대

23) <표 2>에 제시한 각 단원의 주제는 I.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II. 민족 운동의 전개 III. 대한민국의 발전 IV.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V.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VI.현대 세계의 전개이다. 그러나 V단원과 VI단원은 세계사 관련 부분이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한 각 출판사의 서술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서술하는 방식이나 분량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주로 선사시대, 대몽항쟁기, 제주 4·3사건이었고, 이외에도 통일신라시대의 대외무역과 관련한 내용, 환해장성, 제주향교 등 제주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기도 했다. 각 출판사별로 제주관련 내용 서술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학사 교과서

교학사는 교과서 내용에는 제주의 유적지를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에 신석기 유적 분포도를 실고 제주의 한경면 유적지를 표기해 놓았다. 고려시대 대몽항쟁과 관련해서는 몽고군의 침입경로와 함께 삼별초의 저항 경로도 자세하게 지도에 나타내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제주 4·3사건의 경우에는 보충설명으로 민간인들이 좌익으로 몰려 희생되었다는 내용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가 보인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에서 제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눈에 띄는 점은 조선시대 교육기관 서원과 향교를 소개하면서 진주 향교, 안성 향교와 더불어 제주 향교를 사진과 함께 실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단원은 제주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서술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향교가 소개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탐방’으로 보충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 지역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적을 탐방하고 그 경험을 교과서와 연계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역사 학습이 될 수 있다.

2) 금성출판사 교과서

금성출판사는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선사시대, 대몽항쟁, 제주 4·3사건 등의 내용을 제주와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선사시대와 관련해서는 교과서 내 서술보다는 그림이나 지도, 사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모습이 보였다. 제주와 관련한 제주 사계리, 제주 고산리 유적 등도 지도에 표시하고 짧은 설명으로 교과서의 서술을 대신하였다.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더 익숙

한 학생들의 성향을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대몽항쟁과 관련한 부분도 몽골이 침입경로, 삼별초의 이동, 삼별초의 참전 등으로 지도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제주 4·3사건의 내용은 두 문장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보충설명이나 자료 등이 없었다.

3) 동아출판 교과서

동아출판의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들에 비해 제주와 관련된 내용 서술이 많은 편이다. 기본적인 선사시대, 대몽항쟁, 제주 4·3사건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농민봉기와 관련하여서도 제주 지역도 표시가 되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조선시대 후기 농민봉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홍경래의 난(1811), 진주 농민 봉기(1862) 등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많이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제주에서도 강제검의 난(1862), 방성철의 난(1898) 등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런 사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이 이 단원을 학습 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농민봉기와 더불어 제주의 봉기와 관련한 역사적 지식을 알려주며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 학습이 될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지도의 작게 표시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지역사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교과서를 제작할 때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는 특별히 다른 교과서와 다른 서술방식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보충적으로 제주도민이 연행되고 있는 사진을 실으면서 “체포된 제주도 주민이 국방 경비대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20대 청년 외에도 노인, 부녀자 등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그 중에는 청년, 노인, 부녀자, 아이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한 장의 사진으로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아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해 주기 위해 편파적이지 않은 교과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 또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4) 미래엔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는 9종의 교과서 가운데 제주 관련 내용이 가장 적은 교과서이다. 선사시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서술이 없고 대몽항쟁, 제주 4·3사건 정도에만 제주도가 언급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대외무역 부분을 동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드로 설명한 부분이 흥미롭다. 한국—중국—일본의 교류지역에 제주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의 서술로 대외무역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지도와 함께 사진, 그림 등으로 이해를 돕으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충자료의 활용은 흥미 있는 역사수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몽항쟁의 부분에서는 지도에 몽골의 침입과 삼별초의 저항 경로를 나타낸 것은 다른 교과서와 비슷했지만 지도에 주요 사건들을 나열하여 한눈에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에 대한 언급은 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보충적인 설명으로 제주 지역의 대몽항쟁 유적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구나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짧게 서술되어 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격렬해졌고, 이 과정에서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는 비교적 간단한 서술로 단독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한 것처럼 언급했다. 그러나 교과서 하단에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보충적인 설명이 있다. 특히 사건의 개요보다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03년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발간에 대한 내용,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사건의 내용보다는 희생자와 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바라본 시각이 돋보였다.

5) 비상교육 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는 선사시대에 제주와 관련된 부분은 지도로 제주 빌레못 동굴과 제주 고산리 유적을 표시하면서 별다른 서술은 없었다. 대몽항쟁과 관련해서는 보충자료로써 ‘현장 다가가기’의 내용으로 항몽 유적지를 소개했다. 몽골에 대항했던 경로를 지도와 함께 진도의 용장성, 제주의 항파두리 항몽 유적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은 조선 후기 하멜의 표류기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는 것이다. ‘17세기 조선에 온 서양인들’이란 제목으로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에 대한 소개이다. 이런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유도하여 당시의 사회 상황,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제주도 표류했던 이야기, 관련된 지역 등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자기 지역의 역사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6) 좋은책 신사고 교과서

좋은책 신사고 교과서에도 제주와 관련한 부분은 가장 먼저 선사시대에 관한 것이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유적이 있는 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것은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이다. 1976년에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고려시대 도자기 운송로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교류보다는 수중문화재 발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었고 문화재 발굴 지역에 제주 지역 부근도 포함되어 있다.

대몽항쟁 부분에서도 지도를 활용하여 몽골의 침입, 삼별초의 저항 경로를 나타낸 것은 다른 교과서와 비슷했다. 그러나 ‘제주도로 떠나는 역사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보충학습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금껏 어떤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제주의 환해장성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돋보이는 점이다. 그동안 삼별초와 관련한 유적으로는 항파두성만 언급되었는데 제주의 바다 곳곳에서 보이는 환해장성도 몽골과의 전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학생들의 역사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과 주위의 유적·유물을 연계한 학습이 의미 있는 지역사 학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좋은책 신사고 교과서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다른 교과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주 4·3사건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의 사회 상황, 사건의 진행, 결과 등을 상세하게 서술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훨씬 높였다. 그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 관련 사이트 등의 정보를 함께 설명하였다. 제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하여 이 정도의 비중으로 교과서를 만든다면 따로 지역사 학습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적인 상

황에서는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외에 지역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 내용 구성, 학습 자료의 개발, 학습 방법의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7) 지학사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선사시대, 대몽항쟁, 제주 4·3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선사시대와 대몽항쟁은 지도로 표시하였고, 보충적으로 제주 대몽항쟁 기념비의 사진을 실었다. 조선시대 농민봉기지도에도 제주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 4·3사건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는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른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이 학살당하였다.(제주 4·3 사건)”이라고 서술했다. 단순히 사건에 대한 서술이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8) 천재교과서 교과서

천재교과서는 선사시대 관련 내용 중에서 제주도 구석기 시대 유적을 비중 있게 다뤘다. 지도의 지역분포나 교과서 서술에는 제주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구석기 시대 사람 발자국에 대한 자세한 보충자료를 실었다. 심화 탐구학습으로 접근하기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천재교과서는 근·현대사 부분의 내용에서 제주 관련 서술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먼저 개항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다른 교과서들과는 다른 ‘이양선 출몰’에 대한 지도를 실었는데 제주도 영국 함대가 출몰했던 지역으로 표시되었다. 또한 3·1 운동에 관한 보충자료에서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해 다루었다. ‘우리 지역에서 울려 퍼진 만세 소리’라는 제목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3·1 운동에 대해 조사해보는 활동을 실었다. 3·1운동의 전국 확산이라는 지도에 제주 지역도 소규모 운동 지역으로 분류되어 표시되었다. 다른 교과서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3·1 운동을 지역의 만세운동과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역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 만세운동과 함께 학습하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했던 사진을 자료로 사용했다. 4·3사건으로 희생되었던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9) 천재교육 교과서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은 고려시대 농민봉기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시대 농민봉기에 관한 내용에는 제주지역이 포함되는 지도 표시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고려시대 농민봉기 지역 분포에서는 제주 지역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에서 일어났던 농민봉기,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봉기에 대해서도 연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출판사 교과서에 수록된 제주관련 서술 내용과 주요 삽화, 그림 등의 자료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3>의 선사시대, <표 4>의 대몽항쟁, <표 5>의 제주 4·3사건, <표 6>의 기타자료와 같다.

<표 3> 선사시대 서술 및 삽화, 그림



출판사	서술 내용 및 삽화, 그림	
<p>교학사 18쪽</p>	 <p>○ 신석기 유적 분포도 ○ (지도) 신석기 유적 분포도</p>	<p>○ 서술 내용 없음</p>
<p>금성출판사 23쪽</p>	<p>○ (지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구석기 문화</p>	<p>○ (서술) 제주 사계리 : 2만여 년 전에 살던 인류가 남긴 발자국 화석이 확인되었다. ○ (서술) 제주 고산리 유적 : 우리나라</p>

		<p>라의 신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1만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 잔석기와 함께 빗살무늬 토기 이전의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p>
<p>동아출판 17쪽</p>	<p>○ (지도) 주요 신석기 유적</p>	<p>○ (서술)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유적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제주 한경 고산리, 강원 양양 오산리, 서울 강동 암사동 등이 대표적이다.</p>
<p>미래엔</p>	<p>○ 서술 및 삽화, 그림 없음</p>	
<p>비상교육 21쪽</p>	<p>○ (지도)만주와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지</p>	<p>○ (서술)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의 연대 측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p>
<p>좋은책 신사고 20쪽</p>	<p>○ (지도)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구석기-신석기 유적</p>	<p>○ 서술 내용 없음</p>

<p>지학사 18쪽, 20쪽</p>	<p>▲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구석기 유적지 빙하기에는 한반도의 주변 지역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p> <p>○ (지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구석기 유적지(제주 빌레못동굴)</p> <p>▲ 토기(제주 한경) 곡식 저장</p> <p>○ (사진) 토기(제주 한경)</p>	<p>○ 서술 내용 없음</p>
<p>천재교과서 19쪽</p>	<p>○ (사진) 구석기 시대 사람의 발자국 화석(제주 서귀포)</p>	<p>○ (보충설명) 제주도에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사람의 발자국 화석 : 2003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구석기 시대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자국 화석은 아시아에서는 최초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이 발자국은 대략</p>


		<p>1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발크기는 대부분 21~25cm였고, 형태상 요즘 사람들의 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주도의 구석기 시대 사람은 한반도와 제주도를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었다.</p>
<p>천재교육 21쪽</p>	 <p>○ (지도)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p>	<p>○ (서술)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은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이며, 이 밖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유적과 랴오둥 반도의 사오주 산(소주산), 선양의 신라(신락) 유적 등이 있다.</p>

<표 4> 대몽항쟁 서술 및 삽화, 그림



출판사	서술 내용 및 삽화, 그림	
<p>교학사 128~130쪽</p>	 <p>○ (지도)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 삼별초는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가면서 계속 항전 하였으나, 결국 고려 정부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압되었다. ○ (서술) 원은 화주에 쌍성총관부, 서경에 동녕부, 제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그 일대를 지배하였다. 이 중에서 동녕부와 탐라총관부가 관할하던 지역은 곧 되찾았지만, 쌍성총관부가 관할하던 지역은 공민왕이 무력으로 되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원의 지배를 받았다.
<p>금성출판사 142~143쪽</p>	 <p>○ (지도) 몽골의 침입과 항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가 함락되자, 다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겼으나 결국 진압되었다. ○ (서술) 고려와의 강화 이후 원은 쌍성총관부, 동녕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고려 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다.
<p>동아출판 109쪽</p>	<p>○ (지도)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 삼별초는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반대하며 고려 정부와 몽골에 대항하였다. 이들은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계속 항전하였으나, 고려와 원(몽골)의 연합군에 진압되었다(1273). ○ (사진설명) 삼별초가 고려와 원(몽골)의 연합군에 마지막까지

	 <p> → 몽골의 공격로 → 삼별초의 이동로 → 삼별초의 방격로 </p> <p> 몽골(원) 여진 개경 환도 (1270) 강화도 천도 (1232~1270) 배중순 항쟁 (1270~1271) 김룡정 항쟁 (1271~1273) </p> <p> (사진)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p>	<p>맞선 곳이다.</p>
<p>미래엔 124쪽</p>	 <p> 몽골(원) 여진 개경 환도 (1270) 강화도 천도 (1232) 돌만대장경 간행 (1236~1251) 몽골의 1차 침입로 몽골의 이후 침입로 삼별초의 저항 김윤후 살타 사살(1232) 죽주성 싸움 (1236) 충주 싸움 (1232, 1253) 황룡사 9층 목탑 소실(1238) 초조대장경판 소실(1232) </p> <p> (지도) 고려와 몽골의 전쟁 </p>	<p> ○ (서술) 결국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 정부가 개경 환도를 결정하자, 삼별초는 이를 거부하고 대몽 항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삼별초는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계속 항전하였으나 고려 정부와 몽골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1273). </p> <p> ○ (지도) 고려는 1231년부터 1270년까지 약 40년에 걸쳐 몽골과 전쟁을 치렀다. 고려는 백성의 끈질긴 저항에 힘입어 장기간 몽골의 침입에 대항할 수 있었다. </p>
<p>비상교육 134~135쪽</p>	<p> ○ (사진) 제주 향파두리 항쟁 유적 </p>	<p> ○ (서술) 삼별초는 한때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고 위세를 떨쳤으나, 여원 연합군의 기습으로 진도가 함락 당하자 남은 세력이 다시 제주도로 이동하여 항전을 계속 하였 </p>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설명) 삼별초의 흔적이 남아 있는 향몽유적지들 : 별초가 여·원 연합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싸운 곳이다. 당시에 쌓았던 토성이 일부 남아 있다. ○ (서술) 원은 일본 원정을 계기로 설치한 정동행성을 통해 내정을 간섭하였다. 또한 서경에 동녕부, 화주에 쌍성총관부, 제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해 직접 지배하였다.
<p>좋은책 신사고 124쪽,126쪽</p>	<p>○ (지도) 몽골의 침입과 삼별초의 항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설명) 동녕부·탐라총관부 : 동녕부는 충렬왕 때 회복되었다.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일시 회복 후 개편 및 존폐를 반복하다가 공민왕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p>지학사 130~132쪽</p>	<p>○ (지도) 고려의 대몽항쟁 ○ (사진) 향파두리 대몽항쟁 기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가며 치열하게 항전을 지속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다. ○ (서술) 원은 고려의 북부 지역에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설치하여 직접 다스리는 한편,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두어 말 농장을 운영하였다.

		
<p>천재교과서 132쪽</p>	 <p>○ (지도)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p>	<p>○ (서술)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에 반대한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가며 항쟁을 계속 하였으나 결국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p>
<p>천재교육 132쪽</p>	 <p>○ (지도) 삼별초의 이동 경로</p>	<p>○ (서술) 진도가 함락되자 삼별초는 다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항쟁하였으나 끝내 진압되었다.</p>

<표 5> 제주 4·3사건 서술 및 삽화, 그림



출판사	서술 내용 및 삽화, 그림	
<p>교학사 87쪽</p>	<p>○ 삽화 및 그림 없음</p>	<p>○ (서술) 이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남한 내 좌익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었고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이 일어났다.</p> <p>○ (보충설명) 제주4.3사건 : 1948년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 내의 좌익 세력과, 경찰 및 우익 세력이 충돌한 사건이다. 많은 민간인들이 좌익으로 몰려 희생당하였다. 2000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p>
<p>금성출판사 99쪽</p>	<p>○ 삽화 및 그림 없음</p>	<p>○ (서술) 이후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 좌익 세력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좌익 세력으로 몰려 희생되었다(제주 4·3 사건).</p>
<p>동아출판 81쪽</p>	 <p>○ (사진) 제주도 4·3 사건</p>	<p>○ (서술) 한편,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과 군경이 충돌한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p> <p>○ (사진설명) 제주도 4·3 사건 : 체포된 제주도 주민이 국방 경비대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20대 청년 외에도 노인, 부녀자 등의 모습이 보인다.</p>
<p>미래엔 78쪽</p>		<p>○ (서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격렬해졌고, 이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p> <p>○ (보충설명) 제주4.3사건 : 1948년</p>

	<p>○ (사진) 제주4.3사건</p>	<p>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5·10 총선거 반대와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미군정과 그 뒤를 이은 이승만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을 당하였다. 6·25 전쟁 이후 남북이 서로 대립하면서 희생자의 가족조차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진상 규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침내 2000년 1월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었다. 2003년 정부는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를 발간하고 희생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p>
<p>비상교육 88쪽</p>	<p>○ 삽화 및 그림 없음</p>	<p>○ (서술) 한편,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제주 4·3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하였다.</p> <p>○ (보충설명) 제주 4·3사건 :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군대, 경찰, 반공 단체 등이 제주도에 무력 충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였다.</p>
<p>좋은책 신사고 95쪽</p>	<p>○ (사진) 4·3 해원 방사탑</p>	<p>○ (보충설명)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p>

		<p>○ 1948년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이 무장봉기하여 이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컸던 사건이었으나, 이후 단순히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제정된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한 결과, 제주 4·3 사건 때 당시 제주도민의 1/9에 해당하는 2만 5,000 ~ 3만 명의 대량 희생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데 따른 결과로 밝혀졌다. 이에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해결 과정을 밟았다. 이로써 제주 4·3 사건은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의 상처를 교훈 삼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p>
<p>지학사 85쪽</p>	<p>○ 삽화 및 그림 없음</p>	<p>○ (서술) 제주도에서는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이 학살당하였다(제주 4·3 사건).</p>
<p>천재교과서 77쪽, 89쪽</p>	 <p>○ (사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2006)</p>	<p>○ (서술) 한편 제주도에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좌익 세력의 무장봉기가 발생하여 토벌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제주 4·3 사건).</p> <p>○ (보충설명) 제주 4·3 사건 : 미군정과 정부가 제주도의 좌익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후 정부는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2000. 1.)을 제정하고 진상을 규명하였다.</p>
<p>천재교육 81쪽</p>	<p>○ 삽화 및 그림 없음</p>	<p>○ (서술) 한편,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를 진압하는 과</p>

		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제주 4.3사건).
--	--	---------------------------------

<표 6> 기타내용 서술 및 삽화, 그림

출판사	서술 내용 및 삽화, 그림	
교학사 167쪽	 <p>○ (사진) 제주향교(제주특별자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 조선 시대에는 지방에 중등 교육 기관으로 향교와 서원이 있었다. 향교는 국립 학교이고 서원은 사립학교이다. (중략) ○ (탐방과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남아 있는 향교 또는 서원을 방문하고 보고서는 작성해 보자.
금성출판사	○ 서술 및 삽화, 그림 없음	
동아출판 81쪽, 169~170쪽	 <p>○ (지도)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외교류</p> <p>○ (지도) 19세기에 일어난 농민봉기</p>	○ 서술 내용 없음

	<p>○ (지도) 임술농민봉기 발생지역</p>	
<p>미래엔 116쪽</p>	<p>○ (그림) 동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드</p>	<p>○ (탐구활동) 동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드 : 1975년 5월,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송, 원, 고려의 유물을 실은 채 가라앉아 있는 배가 발견되었다. 이 무역선은 1323년 중국 경원(닝보)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국 무역선으로 밝혀졌다. 당시 발견된 유물을 통해 14세기 동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드를 탐방해 보자.</p>
<p>비상교육 202쪽</p>	<p>○ (그림) 하멜 일행이 효종을 알현하는 모습(로테르담 간, "스테이터")</p>	<p>○ (보충설명) 알쏭달쏭 궁금증해결 -17세기에 조선에 온 서양인들 :</p>

	 <p>○ (사진) 항파두성 외성</p>  <p>○ (사진) 항파두성 내성</p>	<p>외성은 흙으로, 내성은 돌로 쌓아 견고하고 튼튼하였다. 항파두성의 이름은 제주도 말로 '철옹성(쇠처럼 튼튼한 성)'이라는 뜻이다.</p>
<p>지학사 201쪽</p>	 <p>○ (지도) 19세기의 농민 봉기</p>	<p>○ 서술 내용 없음</p>
<p>천재교과서 156쪽, 202쪽, (2권)11쪽, 49쪽</p>	 <p>○ (그림) 황감제</p>	<p>○ (보충설명) 이것이 궁금해요 : 감귤을 먹으면서 치르는 시험이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 제주 목사가 감귤을 진상하면 황감제라는 특별 시험이 열렸다. 황감제는 성균관과 4부 학당의 유생들을 모아 감귤을 나누어 주어 맛있게 하고 치르는 문장 시험이었다. 당시 감귤이 매우 진귀한 과일이었기 때문에 중요에서 지내는 제사뿐만 아니라 유생들을 격려하는 데에도</p>




○ (지도) 19세기 농민봉기



○ (지도) 이양선 출몰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황감제는 한양에 거주하는 유생들만 응시할 수 있었다. 성균관에 들어가지 못한 시골 유생에게는 감귤은 말 그대로 '그림 속의 감귤'일 뿐이었다.

○ (서술) 이후 연합군은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빼앗은 영토들을 돌려줄 것을 결정하였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이 반환해야 할 대표적인 섬으로 기록하였다 (SCAPIN 제677호, 1946).

		
	○ (지도) 3.1운동의 전국 확산	
<p>천재교육 128쪽</p>		○ 서술 내용 없음
	○ (지도) 농민과 천민의 저항운동	

이상에서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제주와 관련된 서술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제주 관련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분량도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의 대부분이 일부 단원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전체 역사 서술에서 탐구활동 정도의 내용에 국한되어 있음은 교과서를 주요 텍스트로 삼아 역사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임도 사실이다. 또 같

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교과서마다 분량의 차이가 있고 아예 서술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특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각 교과서별로 서술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관련하여 한 두 문장으로 소개에 그치는 교과서가 있는 반면, 소주제로 분류해서 한 페이지 전체가 제주 4·3 사건에 관한 서술을 한 교과서도 있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분량도 더 늘어나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이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국가로부터의 당한 ‘폭력’이라는 개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은 교과서에서 소단원, 소주제로 구별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국가의 폭력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출판 중학교 『역사(하)』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980년 5월 민주화를 바라는 학생과 시민은 계엄령의 해제와 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많은 학생과 시민이 희생되었다. 이에 분노한 시민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맞섰다. ……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고 서술되었다. 제주 4·3 사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발생 배경과 과정,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단원에서는 삼국시대 대외 무역, 조선시대 『하멜표류기』 등이 보충적인 내용으로 다뤄진 것이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각 교과서마다 지도의 표기에 탐라와 제주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삼별초의 저항 경로를 나타낸 각 교과서의 지도 중에서 교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천재교육의 출판사에서는 마지막 격전지인 제주를 탐라로 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1105년에 탐라국이 해체되고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면서 제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몽골지배기에 다시 탐라국이라는 호칭으로 쓰이다가 다시 제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습을 할 때 교사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올바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현행 교과서로만 역사 수업을 진행한다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역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

이 크다. 더구나 지역사 학습을 위한 교재를 개발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입시위주의 학교 분위기 속에서는 지역사 자료를 교과서와 분리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이용해 교과서 내용과 연계한 지역사 학습이나 교과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답사 등의 지역사 학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 수업 시수가 편성된 상황에서 지역사 학습을 위한 시수의 할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를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에 대해 안다는 것 이상으로 국가 중심의 역사와는 다른 다양한 역사가 존재하고 주요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가 나와 주변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와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과 자신의 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목표인 것이다. 결국 지역사는 자부심, 다양한 관점의 역사 해석을 포함하여 현장 체험을 포함하는 역사의식의 확장과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24) 오세운,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끌어안기」,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전국역사교사모임)』, 휴머니스트, 2008, 382쪽.

Ⅲ. 중등 역사교육에서 제주지역사 활용 방안

1. 역사수업 반영을 위한 제주지역사 검토

수업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완성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계획된 상호작용’이며 수업목표에 맞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²⁵⁾ 전체적으로 볼 때 학습이란 어떤 활동이나 훈련, 관찰과 같은 일정한 경험에 의하여 행동이 영속적이며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교수-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수업이란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교사와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획된 활동이다.²⁶⁾

수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교사주도 수업과 학생주도 수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사주도 수업에는 강의, 탐구학습/문제해결학습/토의, 실험 등이 있고, 학생주도 수업에는 프로그램학습/관찰, 견학, 조사, 발표/토의/모의실험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수업과 학습의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좋은 수업의 의미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이 잘 되어 교사주도 학습과 학생주도 학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 학습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의미를 놓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이며 흥미로운 지역사 수업을 고안해야 한다.

역사 수업의 방법으로는 학습 활동의 주체와 형태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강의법, 탐구 학습, 토론 학습 등이 있고, 교재의 형태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료 학습, 연표 학습, 인물 학습 등이 있다. 수업 내용의 전달의 매개체 역할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멀티미디어 학습, 시청각 학습, 플립러닝(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수업

25) 이병승 외, 『쉽게 풀어 쓴 교육학』, 학지사, 2016, 232쪽.

26) 이병승 외, 위의 책, 2016, 233-234쪽.

등이 있고 수업 내용 기준으로 분류하면 향토사 학습, 문화사 학습, 사회사 학습 등의 방법이 있다.²⁷⁾

수업 시간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적 접근방법으로 학습 과정에서 본시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교과서 내용을 학습하면서 제주와 관련 있는 주제를 보충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충자료로는 사진, 영상 등 학생들이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이야기극 수업, 신문만들기 수업, 인물탐구 주제 수업 등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교과서 내용과 더불어 수업 시간의 5~10분 정도를 지역사 내용을 곁들이게 되므로 학습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져 학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진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수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주 지역의 관련 자료로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제주 지역사 내용으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9종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서술하는 선사시대의 구석기·신석기 유적, 고려시대 대몽항쟁과 관련된 내용, 제주 4·3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출판사별로 대외무역과 관련한 해상 실크로드, 고려시대의 환해장성,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제주향교 등이 있다. 하지만 제주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교과서의 분량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주지역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역사과목을 학습하면서 지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업시간 내에 지역사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단원별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사 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계획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수업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시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학교수업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시수가 변화하는데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역사 과목 수업 시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7) 전영준,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사학과, 2016, 110쪽.

<표 7> 최근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과목 수업 시수의 비교

	1학년	2학년	3학년
2007 개정 교육과정	-	3시간 (102)	2시간 (68)
2009 개정 교육과정	1~3학년(군) (170)		
2011 개정 교육과정	1~3학년(군) (170)		

*()는 연간 총 수업 시수

2007 개정교육과정까지는 각 학년에 할당된 수업 시수가 있었지만 교과(군)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된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학교 역사과목의 경우 『역사1, 2』를 합쳐 총 170시간이 기준이지만 학교에 따라 수업시간을 134~204시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9종의 역사교과서 중 동아출판의 교과서에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연간 교수-학습 계획을 살펴보면 『역사1』에서는 84시간, 『역사2』에서는 59시간으로 총 143시간을 이용해 역사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 시간 내에서 단원별로 제주 지역사 내용과 연계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교과서 단원별 지역사교육 내용 구성

대단원	중단원	학습주제	제주지역사 교육 내용	제주지역사 활용 자료	수업형태 및 활용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1. 역사의 의미와 선사 시대	신석기·구석기 시대의 생활	구석기시대의 유적 신석기시대의 유적	① 사계리 구석기 사람 화석 ②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 ③ 빌레못 동굴 ④ 삼양동 선사유적지 ⑤ 용담동 제사유적	모둠 조사 후 발표 사진, 슬라이드	
III.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2. 통일신라와 발해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와 발해의 교류	고대의 탐라국	⑤ 신당서(新唐書) 기록 ⑥ 당회요(唐會要) 기록	플립러닝(거꾸로 수업) 영상자료 국립제주박물관자료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2. 무신정권과 농민, 천민의 항쟁	문벌귀족에 맞선 농민항쟁	고려시대 공납, 농민항쟁	⑦ 양수의 난 ⑧ 번석·번수의 난 ⑨ 문행노의 난	극화수업	
	3.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자주화 노력	몽골의 침략과 대몽항쟁	삼별초의 대몽항쟁	⑩ 향파두리 향몽유적 ⑪ 환해장성 ⑫ 목호의 난	역사신문 만들기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통치체제의 정비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⑬ 제주향교 ⑭ 오현단 ⑮ 굴림서원	하브루타 수업 사진, 슬라이드	
VI. 조선 사회의 변동	3. 세도정치와 농민의 저항	세도정치와 농민 봉기	조선후기의 농민봉기 서양인 표류	⑯ 강제검의 난 ⑰ 방성철의 난 ⑱ 이재수의 난 ⑲ 하멜표류기 ⑳ 유배문화	사진, 슬라이드, 영상자료	
근현대사	II. 민족운동의 전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3·1운동의 전국 확산	⑳ 법정사 항일운동 ㉑ 조천 만세운동 ㉒ 해녀항일운동 등	모둠별 현장학습
	III. 대한민국의 발전	1. 대한민국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㉓ 제주 4·3사건	주제탐구 토론수업

1) 『역사1』교과서의 <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단원

이 단원에서는 역사 학습의 목적, 선사 문화의 발전에서 국가 형성까지를 다룬다. 역사가 현대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선사 시대의 삶을 유추해본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 뒤를 이은 여러 나라의 성장을 살펴본다.²⁸⁾

교과서에는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유적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제주 한경 고산리, 강원 양양 오산리, 서울 강동 암사동 등이 대표적이다.”²⁹⁾라는 서술로 제주도의 구석기·신석기 유적을 설명하고, 대부분 지도에 지역 표기를 통해 나타내었다.

제주도 역사의 시작은 구석기시대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일대 중산간지역인 ‘빌레못’ 연못 주변에 화산 폭발로 생긴 용암 동굴에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동물뼈 화석은 갈색 곰과 사슴 등이 있으며, 석기는 대부분이 박편석기이다. 빌레못 동굴은 구석기유적인 동시에 제주 4.3유적지이다.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었던 애월읍 어음, 납읍, 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한 곳이기도 하다.



그림 1) 빌레못 동굴 유적 근경과 입구

사계리 해안에는 '제주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이 있다. 이 화석은 2003년 10월에 발견되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생성연대측정결과 화석의 생

28) 이문기 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2, 25쪽.

29) 이문기 외, 중학교 『역사1』 교과서, 동아출판, 17쪽.

성연대는 약 7,000년~15,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곳은 사람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새발자국화석, 우제류의 발자국 화석, 어류의 생흔화석, 다양한 무척추 동물의 생흔화석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총 100여점 이상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⁰⁾ 이 발자국 화석은 한반도에서 인간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464호로 지정됐다.³¹⁾

제주도의 신석기 시대는 한경면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의 발견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의 신석기 유적지는 50여 군데 있고, 이 중 고산리 한장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기 신석기 유적지이다. 고산리 선사인들은 덩치가 작고 동작이 빠른 사슴과 노루를 잡기 위하여 다양한 돌화살촉과 창을 만들었으며, 움집을 짓기보다는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동굴과 바위 그늘을 이용하여 집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주 선사인들은 자연조건을 이용하면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갔다. 고산리 선사 문화는 제주시 용담동, 한림읍 금능리, 구좌읍 김녕리, 조천읍 북촌리 등지로 널리 퍼져나갔다.³²⁾



그림 2) 고산리 유적 입구와 안내판

30) 김경수·김정률, 「남제주 사람 발자국 화석의 생성 연대」, 『한국지구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지구과학회, 2006, 152-153쪽.

31) 문화재청 보도자료, 「제주도 남제주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 산출지 천연기념물 지정」, 2005.05.07.

32)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9, 13-14쪽.

수업형태	모둠 조사 발표 수업
------	-------------

일반적인 선사시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구석기 유적으로 대표되는 빌레 못동굴과 사계리 구석기 사람화석, 고산리 신석기 유적, 삼양동 선사유적지 등 제주에 분포하고 있는 선사시대 유적을 모둠으로 조사하여 발표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각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동물의 뼈, 사냥도구 등도 소개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을 유추해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미처 발표하지 않은 빠뜨린 내용이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사진자료와 함께 슬라이드로 제시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역사1』 교과서의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단원

이 단원에서는 고구려의 대외 항쟁부터 삼국통일 과정을 거쳐 남북국 형세를 이룬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신라 하대의 사회적 모순으로 나타난 후삼국 성립까지를 다룬다. 신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삼국통일 과정을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파악하고, 삼국통일로 우리 민족사의 기틀이 다져졌음을 이해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신라와 함께 남북국을 이루면서 민족사의 한 축을 이루었음을 살펴본다.³³⁾

동아출판 교과서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외교류를 설명하면서 지도에 탐라도 표시해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탐라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 다른 나라와 대외교류가 이루어졌던 내용을 교사가 덧붙여 설명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27대 선덕 여왕이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를 업신여겨 괴롭혔다고 한다. 신라에서는 이들을 불력에 의하여 복종시키고자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웠다. 그 1층은 왜(倭), 2층은 진(秦), 3층은 오·월(吳·越), 4층은 탁라(毛羅), 5층은 응유(應遊), 6층은 말갈(靺鞨), 7층은 단국(丹國), 8층은 여진(女眞), 9층은 예맥(穢貊)을 가리켰다. 여기서 제4층의 탁라는 제주를 뜻하는데, 당시 신라를 괴롭히는 네 번째 존재였다.³⁴⁾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면 탐라국은 백제, 신라와 각각 교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660)한 직후에는 바다 건너 일본이나 당나라와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 무렵 중국의 『신당서(新唐書)』의 기록에는

33) 이문기 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2, 26쪽.

34)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25쪽.

용삭 초년(신라 문무왕 원년, 661)에 담라(僮羅)가 있어서, 그 왕 유리도라(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어 입조하였는데, 나라는 신라 무주의 남쪽 섬에 있으며, 풍속은 순박하고 비루하며, 큰 돼지의 껍질을 입고 여름에는 가죽으로 만든 집에 살고, 겨울에는 굴 같은 집에 산다. 땅에서 오곡이 나는데, 경작에 소를 쓸 줄 모르며, 쇠로 만든 갈퀴로 흙을 일군다. 일찍이 백제에 복속하였다가 인덕 연간에 추장이 내조하여 황제를 따라 태산에 이르렀으며, 후에 신라에 복속되었다.³⁵⁾

고 하였다. 같은 시기의 기록인 『당회요(唐會要)』 탐라국조에는,

탐라는 신라의 무주 해상에 있다. 섬 위에는 산이 있고 주위는 모두 바다에 접하였는데, 북쪽으로 백제와는 배를 타고 5일을 갈만한 거리이다. 그 나라 왕의 성은 유리(儒李)이고 이름은 도라(都羅)이다. 성황(城隍)은 없고 다섯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들의 집은 둥글게 돌담을 둘러서 풀로 덮였으며 호구는 8천 가량 된다. 활과 칼 및 방패와 창이 있으나 문기는 없고 오직 귀신을 섬긴다. 항상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고 용삭 원년(문무왕 1, 661) 8월에는 조공 사신이 당 나라에 이르렀다.³⁶⁾

라고 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탐라국의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대 시기의 탐라에 대한 외국의 기록을 근거를 들어야 한다. 위의 기록에서도 당시 탐라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탐라의 지리적 거리와 위치, 명칭, 왕, 풍속, 가축, 성곽, 신앙, 거주지 모습, 무기, 인구 등에 대해 대략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호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탐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 일본과도 사신을 파견하여 교역했고 1105년(고려 숙종 10)에 탐라국이 해체되고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었다.

35)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流鬼·僮羅·達末婁·達婁). “龍朔初, 有僮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36) 『唐會要』 卷100 「耽羅國」, “耽羅, 在新羅武州海上, 居山島上, 周迴並接於海, 北去百濟可五日行, 其王姓儒李, 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有八千, 有弓刀楯稍, 無文記, 唯事鬼神, 常役屬百濟. 龍朔元年八月, 朝貢使至.”

수업형태	플립러닝(거꾸로 수업)
	<p>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수업방법이다. 역진행 수업, 거꾸로 수업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플립러닝은 학습자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습할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해야 할 것을 인식하며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와 토론하고 도움을 받고 함께 학습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이 수업의 특징은 수업 시간 전에 동영상 등을 통해 강의를 먼저 보고 수업시간에는 강의와 관련된 활동과 토론을 진행한다.37)</p> <p>플립러닝의 학습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수업 시간동안 수동적으로 강의를 지켜보는 대신에 수업에 들어오기 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파일 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등 선행 학습을 수행한다. 선행 학습에서 자기학습으로 학습의 이득을 습득한 후, 교실에서는 교수자의 지침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활동 학습, 상호작용 학습, 협력 학습, 문제기반 학습, 일대일 시간을 활용하면서 학습자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개인 또는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37)</p> <p>수업 전에 강의를 미리 보고 오면서 학생들은 대략적인 수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는 좀 더 심층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단원에는 교과서에 탐라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고 지도에 표기만 되어있기 때문에 교과서 외의 내용을 학습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 전(최소 하루 전)에 미리 탐라국과 관련된 수업 영상(5~10분)을 제작하여 올리면 학생들은 동영상을 보고 수업내용을 공부하고 와서 관련 단원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내용 전달이 많은 역사과목에서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p>

3) 『역사1』 교과서의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단원

- 무신정권과 농민, 천민의 항쟁

이 단원에서는 후삼국 통일과 그 이후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가 가져온 정치·사회 변화와 대외 관계의 추이를 다룬다. 고려의 통일이 호족세력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제도 정비를 통해 귀족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였고, 무신 정변 이후에 나타난 고려사회를 다룬다. 무신정변과 농민·천민의 봉기를 거치며 귀족 중심 사회가 변하였음을 인식하면서 대몽 항쟁 이후 지배 세력의 변화를 국제 정세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 모습을 파악한다.38)

고려시대의 제주도는 당초에 군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의종 때에 현으로 강

37) 김정열, 「플립러닝이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16쪽.

38) 이문기 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2, 26쪽.

등되었고, 고종 때에 다시 군으로 환원되었다가 충렬왕 21년에는 제주목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제주라는 명칭은 이미 고려 고종 때(13세기)부터 사용되었다. 다만 몽골의 지배 때는 제주도가 그들의 직할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항상 탐라 혹은 탐라국으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충렬왕 20년에 고려에 반환된 뒤에는 다시 제주로 고쳤다.³⁹⁾

제주는 1153년(의종 7)년에 군에서 현으로 강등되면서 지방관리가 파견되었고 이 때부터 수탈이 자행되어 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민란의 주된 요인은 관리의 가렴주구와 토호 권세가의 토지침탈, 조세·부역의 가중 등을 들 수 있다.⁴⁰⁾ 결국 1168년(의종 22)의 양수가 난을 일으켜 제주도민들로부터 선정관으로 추앙받았던 최척경을 다시 탐라현령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1202년(신종 5)에는 번석·번수 형제의 난, 1267년(원종 8) 봄에는 초적 문행노의 난이 발생했다. 무신정변 전후 시기이지만, 이미 중앙귀족의 병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하층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던 때였다. 더구나 제주라는 명칭으로 지방정부로 편입되던 시기의 혼란과 연관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귀덕 환해장성

39)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69-71쪽.

40) 전영준, 「12세기 중앙정부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제주의 시간 그리고 사람』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2016.10.21.).

수업형태	극화수업
------	------

이 단원에서는 무신 정권이 들어선 후 집권자들의 수탈이 이전보다 심해지면서 농민과 천민 등 하층민이 봉기를 일으켜 저항하는 내용을 다룬다.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망이·망소이의 난(1176), 김사미·효심의 난(1193), 만적의 난(1198)과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서 일어났던 농민봉기에 대해 학생들이 조사하고 당시의 상황을 유추하면서 극화 활동을 하면서 당시 제주의 상황과 아울러 무신집권기의 사회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역사교육에서 극화수업은 연극형식(영상극, 인형극, 그림자극, 뮤지컬), 다큐멘터리 형식, 뉴스 보도 형식, 시사토론 형식, 모의재판 형식, 모의국회 형식, 마당극 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⁴¹⁾

극화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게 맞는 극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그저 놀이로만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역사적 상황이나 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한다. 또한 극화수업의 대본은 학생들이 직접 써야 한다. 직접 대본을 쓰는 과정이 역사 수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대본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본을 다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후속 평가와 토론도 중요하다. 이때 극이 역사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학생 체크리스트법(동료 평가, 자기평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⁴²⁾ 이러한 방법은 학생주도적인 수업이 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학생들이 영상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극화활동의 결과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다양한 채널에 올리므로써 수업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자주화 노력

모든 교과서에서 대몽항쟁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장기간 저항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주로 백성의 자발적 항전을 들고, 최씨 정권의 상무적 분위기와 항몽 의지, 삼별초의 활약 등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언급하였다.⁴³⁾

마지막 격전지였던 제주도에 관련한 서술 비중은 다른 내용에 비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삼별초는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계속 항전하였으나 고려 정부와 몽골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⁴⁴⁾고 서술하면서 제주도의 항과두리 항몽유적지의 사진이나 삼별초의 항쟁 경로를 나타낸 지도 등으로 보충적인 자

41)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231쪽.

42) 최형지, 「고등학교 극화수업의 적용과 역사교육적 효과 : 격동의 시대(1894년~1896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9-12쪽.

43) 정기문 외, 『역사학의 성과와 역사교육의 방향』, 책과함께, 2013, 231-232쪽.

44) 정선영 외, 중학교 『역사1』 교과서, 미래엔, 2012. 124쪽.

료를 다양하게 실었다.

고려는 1231년부터 30년 동안 몽골의 침략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몽골의 침략에 대해 당시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저항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는 민인들이 몽골의 침략에 대항해 싸웠다. 1270년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가 반기를 들고 대몽항쟁을 전개하였다. 장군 배중손과 야별초, 지유, 노영희 등이 강화에서 삼별초를 거느리고 반기를 들었으며, 승화후 온을 협박하여 왕으로 삼았다. 삼별초는 곧바로 8월에 진도로 옮겨와 장기적인 대몽항쟁을 계획하였으며 일본과의 제휴도 모색하였다. 삼별초군은 남해안 일대와 전라도 일대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게 되었다. 진도에 근거하고 있던 삼별초군은 여몽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몇 차례 물리쳤지만 결국 원종 12년(1271) 5월 진도에서 쫓겨 제주도로 건너갔다.⁴⁵⁾

김통정은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제주로 들어와 이미 제주에 입거한 이문경 부대와 합세하였다. 이어 남해안에 근거하고 있던 유존혁도 80척의 선단을 이끌고 제주에 합류하여 제주 향파두리 토성을 중심으로 항쟁을 전개하였다. 향파두리 토성은 3면이 해자의 기능을 겸비하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북쪽으로 남해안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삼별초는 제주를 근거로 전라도 남해안 지역까지 진출하여 조운선 및 전함 파괴, 강진 등 전라도 지역에 상륙하여 관아를 불태우거나 재물약탈, 몽골 병사를 살해·납치하였다. 이는 삼별초가 대몽항쟁에 필요한 식량 등 물자를 확보하고, 몽골군의 해상작전을 봉쇄하려는 것이었다.⁴⁶⁾

제주에서 삼별초가 항쟁을 전개하자 몽골은 고려 정부에 삼별초 토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삼별초 토벌은 남송과 일본 정벌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였다. 해상요충지인 제주의 확보는 몽골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1만 명으로 편성된 여·몽연합군은 1273년(원종 14) 3월 160여 척의 선박에 나누어 타고 출정하였다. 삼별초 토벌군대 김방경을 필두로 3군으로 나누어 함덕포, 귀일포, 명월포로 각각 제주 상륙에 성공하였다. 김방경은 4월 28일에 삼별초의 최

45) 이병희, 「고려시대 지역사 서술체계와 활용 자료」,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2001, 253-255쪽.

46) 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214-216쪽.

후 거점인 향과두리성을 접수하고 삼별초의 항복을 공식화하였다.⁴⁷⁾

수업형태	역사신문 만들기
	<p>고려의 대몽 항쟁과 대몽항쟁과 관련하여 삼별초가 제주까지 와서 항전하게 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다. 다른 단원에 비해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 대몽항쟁과 관련된 중단원 <3.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의 수업 시수도 3시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에서 이 단원을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신문만들기 수업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1차시에는 고려와 몽골과의 관계, 대몽항쟁, 반원정책 등의 내용 설명을 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시한다.</p> <p>학생들은 신문에 들어갈 내용과 비중, 형식 등을 의논하고 계획할 수 있다. 2차시에는 신문에 실을 내용을 추리고 기사를 써보는 활동을 하고 3차시에는 직접 신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신문'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 해 볼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p>
<p>※ 역사신문 만들기 과정</p>	<p>① 4~6명의 모둠을 형성한다. : 각 모둠의 모둠장을 뽑고 주제를 결정한다.</p> <p>② 삼별초 항쟁 및 당시 고려시대 제주의 상황 내용 정리하기</p> <p>③ 모듬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자료조사하기</p> <p>- 모듬원 역할분담</p> <p>모듬장 : 역사 신문 제작 총괄 및 주제 정하기</p> <p>모듬원1~3 : 삼별초 항쟁의 주요 내용 정리</p> <p>모듬원4 : 신문 편집과 신문 광고 제작</p> <p>모듬원5 : 신문의 사설과 만화 등 담당</p> <p>④ 조사한 내용 가운데 신문에 넣을 내용 선정하기</p> <p>모듬장과 모듬원이 협의하여 신문에 넣을 내용을 선정한다.</p> <p>⑤ 신문 제작하기</p> <p>주제 : 삼별초의 항쟁</p> <p>기사</p> <p>- 김통정 인터뷰</p> <p>- 항몽유적지 탐방기</p> <p>- 광고 : 삼별초 현상금 100원</p> <p>- 만화 : 고려정부, 몽골, 삼별초, 제주도민 각각의 입장을 한 컷씩 그리기.</p> <p>⑥ 신문을 제작한 후 신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편집 후기 작성하기</p>

47) 김일우, 「탐라와 몽골문화의 교류와 탐라사회의 변화」,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201-231쪽.

4) 『역사1』 교과서의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단원

이 단원에서는 조선의 성립 이후 문물제도 정비를 통한 정치·문화 발전과 양난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이 시기에 조선 정치의 기틀이 형성되고, 사림이 등장하며,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가 운영되었음을 파악한다.⁴⁸⁾ 성리학이 전해지면서 사림 세력의 성장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림 세력의 성장 배경을 향약, 서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서 서당, 향교, 성균관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제주에는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에 각각 향교가 세워졌다. 제주향교는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향교이다. 1392년(태조 1)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여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창건되었다. 처음 위치는 지금의 원정로, 즉 옛날의 이른바 교동에 설립되었다. 몇 차례 재건 등을 거쳐 1827년(순조 27)에 이행교 목사가 지금의 자리인 제주시 용담1동으로 옮겼다.

대정향교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향교이다. 1408년(태종 8)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하여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대정현 성내에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북성 안에 있었으나 중간에 동문 밖으로 옮겼고, 다시 서성 안으로 옮겼으나 1653년(효종 41) 이원진 목사가 현재의 위치인 단산 아래쪽으로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의향교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향교이다. 현유의 위패를 봉안하여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창건하였다. 고명학의 기문에 의하여, “1423년(세종 5)에 정의현청을 진사리(현 성읍리)로 이설할 때에 향교를 서성 안에 세웠는데, 관아가 가깝고 여염집이 떠들썩하여 문묘의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1809년(순조 9)에 여철영 현감이 북성 쪽인 화원동의 조용한 곳으로 옮기려고 동년 10월 24일 착공하였으나 객사의 화재로 인하여 도중에 체임되고 후임 노상희 현감에 의해 다음해 3월 9일에 완공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인 1738년(영조 14)에는 나억령 현감이 명륜당과 재실을 건립하였다고 하며, 1849년(헌종 15)에는 장인식 방어사가 조정에 계청하여 지금의 위치로 이관하였으며, 1967년에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⁹⁾

48) 이문기 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2, 26쪽.

수업형태	하브루타 수업
------	---------

하브루타(Havruta) 수업방식의 핵심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교육방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학생중심수업을 지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업방법이다. 하브루타를 실행할 때 두 사람은 함께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텍스트가 자기 삶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폭 넓은 질문을 탐색하며, 학습자에게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브루타 교육은 협력적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공적인 학습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또한 모든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⁵⁰⁾ 이러한 방법은 친구를 가르쳐주고 친구에게 배우면서 학습이 되고 나아가 심화토론까지 할 수 있다.

학습피라미드(Learning pyramid)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한 다음에 24시간 후에 남아 있는 비율을 피라미드로 나타낸 것이다. 이 피라미드를 보면 강의 전달 설명은 5%, 읽기는 10%, 시청각 교육은 20%, 시범이나 현장견학은 30%의 효율성을 갖는다. 토론은 50%, 직접 해보는 것은 75%,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90%의 효율을 갖는다고 하니 하브루타 학습법은 학습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교사가 미리 통치제도와 관련한 내용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행정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제주의 향교 이렇게 4가지의 자료를 준비하고 한 모듬에 4~5명으로 구성하여 각 모듬원들에게 각기 다른 자료를 나누어준다. 10~15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학습한다. 개인 학습시간이 끝나면 각자 학습한 내용을 모듬원들에게 설명해준다.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면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는 모듬활동이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면서 조언해주고 마무리로 정리를 해 줄 수 있다.

<활동 예시>⁵¹⁾

[자료1],[자료2]를 배부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 파트너와 교대로 내용을 정확하고 크게 두 번씩 읽으시오.
-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 3가지를 파트너에게 질문하시오.
- 모르는 용어가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파트너에게 질문하시오.
- 파트너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말로 설명해 주시오.
- 이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트너에게 설명하시오.

5) 『역사1』 교과서의 <VI. 조선 사회의 변동> 단원

이 단원에서는 양 난 후 통치 체제의 개편과 정치적 변화 과정, 경제 성장과

49) 제주의 문화재,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u.go.kr>).

50) 정선영, 「이스라엘 하브루타 원리에 기초한 온라인 토론활동이 토론수행기술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9-10쪽.

51) 서윤주, 「하브루타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과수업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118쪽.

사회 변화, 실학자들의 사회 개혁론 등을 다룬다. 농업 생산력 증대와 상공업 발달 등의 경제 변화가 사회·문화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한다.⁵²⁾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일정한 행정체제를 갖추어 갔다. 1416년(태종 16)에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의 1목 2현제가 성립되었고, 제주목에는 정3품의 목사와 목사를 보좌하는 종5품의 판관, 그리고 대정과 정의 양현에는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고, 관아의 설치와 성이 구축되면서 그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⁵³⁾

인구도 1274년(원종 15)에 1만 223명이었던 것이 조선 세종 때에 와서는 삼읍의 민호가 9,935호, 인구가 6만 3,47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과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실업자는 전라도와 충청도로 이주시키고, 범죄자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인구의 포화상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역사는 중앙정부의 제주도민에 대한 가혹한 경제적 수탈과 저항이라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말의 생산지로 부상되면서 중산간지역의 개간이 허용되지 않아 농토가 부족했으며 감귤, 전복 등의 진상요구는 도민들의 경제적 수탈로 나타나게 되었다.⁵⁴⁾

강제검의 난(1862)은 세도정치 여파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임술농민봉기의 제주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안덕면 서광리의 강제검과 김홍채 등이 목사의 비리와 화전세, 장전세, 역의 폐단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삼읍의 농민들의 대다수가 참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방성철의 난(1898)은 전라도 동북군 사람인 방성철이 제주로 들어와 화전민들과 어울려 남학을 포교하였다. 이 때 이병휘 목사가 탐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이에 방성철은 강벽곡, 정선마 등과 함께 광평리에서 군중을 선동하여 화전세, 마장세, 호세 등을 줄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처음에 이병휘가 난민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여 해산하였지만 아무런 시정이 없자 대규모의 난으로 확산되었다.⁵⁵⁾ 이재수의 난(1901)은 천주교도들과 제주도민들이 무력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대한제국은 국가 재정을

52) 이문기 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2, 27쪽.

53) 전영준, 「文獻과 考古資料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279쪽.

54)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개론』, 제주연구원, 2017.

55) 김봉옥, 앞의 책, 2000, 200-206쪽.

마련하기 위해 1897년 지방 세금을 중앙 세금으로 바꾸는 조세 개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에서 봉세관이 파견되었다. 봉세관은 화전을 비롯해 어장, 그물, 소나무, 목초지까지 세금을 매기면서 제주 토착민들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한편 봉세관은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자 천주교도들에게 세금감면의 혜택과 각종 특권을 주면서 세금 징수에 이용했고 이는 도민들과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민군과 천주교도 양측 간에 살상이 이어지며 대립하다 정부군의 강제해산으로 제주항쟁은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 이재수의 난은 천주교 입장에서는 309명이 희생된 천주교도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도민 입장에서는 당시 천주교의 교폐와 봉세관의 세폐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당하게 일어난 ‘제주항쟁’으로 보았다. 지난 2003년 천주교 측은 과거 교회의 잘못에 대해, 도민 측(기념사업회)은 당시 교인 살상에 대해 사과했다.⁵⁶⁾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형을 살았던 곳이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격리된 절해고도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유형지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그것은 죄인을 먼 곳에 격리시킨다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조 약 500년을 통하여 거의 200여 명에 달하는 유배인들이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했던 것이다. 그 신분도 위로는 광해군과 같은 폐왕이나 왕족, 정치인, 학자로부터 승려와 환관·도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었다.

수업형태	영상자료를 활용한 토론수업
<p>본 단원에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과 맞물려 세도정치의 폐해, 농민들의 수탈 등 당시 생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영상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영화로 만들어졌던 ‘이재수의 난’, 역사 교육 동영상 등을 시청하면서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제주로 유배를 왔던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유적의 사진을 활용하여 교과서의 내용과 제주지역사의 내용을 연계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조선 후기의 제주도에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토론하고 지배층의 수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상황을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p>	

6) 『역사2』 교과서의 <II. 민족 운동의 전개> 단원

이 단원에서는 대한제국 국권이 상실된 이후부터 8·15광복 직전까지를 다룬다.

56)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앞의 책, 2009, 89-91쪽.

일제 강점기 일제의 통치 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맞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⁵⁷⁾

일제강점기의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군(郡)단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군단위로 본 제주도의 항일독립운동은 다른 군에 그 유례가 없을 만큼 활발했다.

도내의 주요 항일운동은 법정사 무오항쟁, 조천독립만세운동, 해녀항쟁 등이 있다. 먼저 법정사 무오항쟁(1918)은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이다. 제주의 3대 항일운동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민족 항일 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사 무오 항쟁은 김연일이 제주도에 들어와 좌면(중문) 법정사에 살면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1918년 8월 19일에 여러 영혼들에게 공영하는 의식인 우란분(盂蘭盆) 때에 30여 명의 신도들에게 “왜놈들이 우리 조선을 병합한 후 일본 관리들은 물론 상인들까지도 우리를 멸시 학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불무황제(佛務皇帝)가 나타나서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모조리 축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18년 10월 5일 신도 33인을 소집하여 스스로 불무황제임을 선언하고 전투부대를 편성, 이웃의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통신 전선을 끊고,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급습하였다. 급보에 접한 제주경찰서는 곧 출동하여 관련자 60여 명이 검거되었다.⁵⁸⁾



그림 4)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기념탑과 발상지

57) 이문기 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2, 28쪽.

58) 김봉옥, 앞의 책, 2000, 249-250쪽.

조천독립만세운동(1919)은 조천리에서 휘문고보 학생 김장환(金章煥: 18세)이 귀향하여 경향 각지의 사정을 알리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좌면 일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검거된 사건이다. 이때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형을 받아 주동자급은 2심에 항고하여 1919년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⁵⁹⁾

제주의 해녀들은 매년 경상남북도 지역에 출가(出稼)를 하였다. 그러나 그 지방 어업조합과 입어료, 어획물 처분 등으로 불이익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20년 4월에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을 조직하였고, 1930년에는 제주도사로 조합장을 겸직하게 하여 해녀의 권익과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일본인 상인들과 결탁하여 해녀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다. 1932년 1월에 구좌면 일대 해녀들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사에게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회시가 없자, 신임 도사가 초도 순시차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년 1월 12일 잠녀 천여 명이 집결하였다가 전구도사를 포위하여 항의한 사건이다. 이 일로 부춘화, 김옥련 등 주동 해녀 20여 명이 검거되자 1월 24일 새벽에 잠녀 5백여 명이 동료 해녀를 구출하기 위하여 세화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 주동자들은 우도로 피신하였는데 경찰대가 우도에 나가 이들을 체포하여 배를 타는 순간 우도 해녀 8백 명이 경찰대를 포위하여 잡혀가는 해녀를 구출하려 하자 공포탄을 발사하여 진압되었다. 부춘화·김옥련은 소요죄로 6개월 여를 미결수로 감옥 생활을 하다 풀려났다.⁶⁰⁾

59)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1996, 175-180쪽.

60) 제주도, 앞의 책, 1996, 273-303쪽.



그림 5)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과 해녀박물관(제주시 하도리)

수업형태	모둠별 현장학습
------	----------

이 단원에서는 일제에 항거했던 항일운동에 대해 학습하면서 제주지역에서 일어났던 항일운동을 모둠 현장학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제주 3대 항일운동이라고 일컫는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의 발상지에 직접 가보고 조사를 함으로써 항일운동에 대한 학습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 할 수 있다. 각각의 장소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서귀포시 도순동), 조천만세동산-제주항일기념관(조천읍 조천리), 해녀박물관(구좌읍 상도리)이다. 모둠으로 나누어 주말 등을 이용하여 다녀오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이 직접 항일운동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면서 자부심과 애乡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중앙 위주로 서술된 교과서와는 달리 자신의 지역 가까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 항일독립운동은 다른 군에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활발했다. 본토에서의 독립운동에 호응한 활동도 있고, 독자적인 항일독립운동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제주도 항일독립운동을 총론적으로 개관하여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항일독립운동의 전반적인 성격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다.

첫째, 제주도민 내부의 계급적 갈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자본적, 반지주적 계급투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국 항일독립운동의 전반적인 성격은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각 계층별 계급의식의 각성과 사회주의사상의 침투에 따라 노동

쟁의 혹은 소작쟁의가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다. 물론 약간의 지역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해방 전에 제주도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고 여기에 보충적인 산업으로서 수산업과 목축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소작쟁의가 거의 안 보인다. 물론 1930년대의 가장 큰 투쟁으로서는 1932년의 ‘해녀항쟁’이 있었지만 이 투쟁도 수산자본에 대항한 해녀항쟁이라기보다도, 일제권력에 유착한 해녀어업조합에 대응하여 해녀를 중심으로 결속된 마을공동체의 대결이란 성격이 농후하다.

둘째, 제주도 항일독립운동은 특히 1920년대 후반부터 압도적으로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3·1운동 후에 한국의 독립운동은 사상적으로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운동, 부분적으로는 무정부주의운동으로 분화된다. 그런데 1920년대의 한국 내 민족주의운동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모체로 해서 전개된 명사(名士)들의 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사상운동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선구자로 김명식을 드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아일보」를 모체로 하는 민족주의운동과는 다른 방향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즉 한국 최초의 노농단체로서 1920년 4월에 창립된 ‘노농공제회’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며, 그 후 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주의운동의 초창기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제주도 사상운동에 대한 그의 선구자적 영향이 직접, 간접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셋째, 제주의 사회주의 운동에는 파벌투쟁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넷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조건이 작용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성격의 항일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¹⁾

<표 9> 도내 주요 항일운동

번호	내 용
1	국권회복 거사(1907년 / 제주경찰서 비밀보고서, 김석명 판결문)
2	안중근의사 추도문 투고사건(1910년 3월 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부 판결문)
3	법정사 무오항쟁(1918년 10월 5일 / 고등경찰요사,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4	조천독립만세운동(1919년 3월 21일~24일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61) 제주도, 앞의 책, 1996, 45-48쪽.

5	독립회생회 군자금 모금운동(1919년 7월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6	기미격문사건(1919년 10월 15일 /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증언)
7	송죽매결의(松竹梅結義) 항일운동(김명식 판결문, 한국독립운동사, 김석익 문집)
8	추자어민항쟁(1926년 5월 11일 /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9	제주농업학교 일본인교사 배척사건(1926년 6월 25일 / 동아일보 1926. 7. 1, 동 7. 18, 동 7. 25)
10	정의면 청년회 씨름대회 사건(1927년 5월 27일, 재판 회부)
11	무정부주의 비밀결사 우리계 사건(1927년~1930년 6월 / 판결문)
12	부태환 항일투서 사건(1928년 2월 12일 / 경찰보고서)
13	제주보통학교 체벌교사 배척사건(1928년 2월 17일 / 동아일보 1928. 2. 29)
14	신인회사건(1928년 /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15	조천리 금주운동(1929년 / 판결문)
16	대정소년단체 어린이날 사건(1929년 5월 5일 / 동아일보 1929. 5. 14)
17	조천, 하귀리 야학운동(1930년 3월~1936년 초 / 판결문)
18	조천보통학교 일본 국가제창 거부사건(1931년 1월 1일 / 동아일보 1931. 2. 13)
19	화북리 소년단원 장의식 사건(1931년 2월 12일 / 판결문)
20	제주농업학교 부당졸업사정 항의사건(1931년 3월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21	함덕리 한영섭 추도비문사건(1931년 3월 17일 / 판결문)
22	호세불납운동(1931년 4월 / 동아일보 1931. 4. 26)
23	제주청년동맹원 항일사건(1931년 7월 13일 / 판결문)
24	해녀항쟁(1932년 1월 12일~24일 / 동아일보 1932. 1. 28, 동 29)
25	혁우동맹사건(1932년 1월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26	조천리 청소년 항일의식 고취 연설사건(1932년 2월 4일~5일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27	제주농업학교 독서회사건(1932년 3월 11일 / 「제농학적부」, 『독립운동사자료집』 13, 국가보훈처)
28	강창보 탈출 협조사건(1932년 5월 2일~21일 / 판결문, 증언)
29	추자어민 항쟁(1932년 5월 /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증언)
30	서귀리 독서회 사건(1934년~1937년 / 판결문)
31	제주농민조합 사건(1936년 / 검사 기소문, 판결문)
32	무극대도교 사건(1936년~1937년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33	송희경의 군사기밀 유포사건(1937년 10월 22일 / 판결문)
34	신좌소비조합운동(1937년~1942년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35	미륵교 사건(1938년~1942년 / 판결문)

36	김태근의 전항 유포사건(1940년 11월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
37	천주교 사건(1941년~1942년 10월 24일 / 판결문)
38	단파 『미국의 소리』 청취 사건(1944년 12월~1945년 5월 17일 / 광주지방
39	법원 제주도지청 수형인 명부)
40	군사기밀 및 전항유포 사건(1945년 1월~4월 21일 / 판결문)

7) 『역사2』 교과서의 <Ⅲ.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단원

이 단원에서는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과정을 다룬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 산업화와 경제 발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살펴보고, 더욱 발전적인 우리나라의 미래 건설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진다.⁶²⁾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남한 내 좌익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었고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이 일어났다”⁶³⁾라는 내용으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고 보충자료 등으로 자세한 설명을 실어 놓았다. 하지만 각 출판사별로 제주 4·3 사건의 내용이나 분량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발간하려다가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에서 제헌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유엔 감독하에 실시되었다.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제주도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9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⁶⁴⁾라고 서술되었다. 보충적으로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2014년에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비해 교과서의 내용에서 언급되는 정도로만 서술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태평양전쟁이 끝나자 제주도에 주둔했던 7만여 명의 일본군은 철수하고 군사시설이 모두 파괴되면서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일본에 건너갔던 6만여 명의 제주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지만 급격한 인구병동, 생필품 부족, 질병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62) 이문기 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2, 29쪽.

63) 양호환 외, 중학교 『역사2』 교과서, 교학사, 2012, 87쪽.

64)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역사2』 교과서, 교육부, 2016, 132쪽.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발포사건으로 제주도내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 단체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미군정청은 3월 8일 합동조사반을 제주에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으나 공식적인 진상 발표는 하지 않고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다.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울렸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축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 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미군정은 초기에 무장대와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평화협정을 추진했지만 미군정 하지사령관의 무력 진압 방침 결정, 오라리 마을 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협상은 파기되었다. 이 방화는 우익 청년들이 저질렀지만, 미군정과 경찰은 “폭도들이 한 행위”로 조작하였다. 5·10선거가 실패하자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탄압이 시작되고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2만 5,000~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48년 11월 이후 무차별 토벌작전이 벌어진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토벌대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일부 마을을 지목해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구좌면 세화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면 남원리·위미리 등은 ‘토벌대 진영’이라 하여 무장대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1948년 12월 31일 계엄령이 해제되고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고,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4·3사건은 끝나는 듯 보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다시 제주에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

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처형되었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4·3사건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2만 5,000~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가옥 4만여 채가 소실되었으며, 중산간 지역의 상당수 마을이 폐허로 변했다. 학교·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건물이 불탔으며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 1954년 4·3이 종료되면서 폐허가 된 마을의 복구와 정착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4·3이 제주공동체에 남긴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연좌제와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유가족들을 얽어맸으며, 고문 피해로 인한 후유장애, 레드 콤플렉스 등 정신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공안기관의 감시에 시달렸다.

제주도 섬공동체의 파괴는 비단 가옥과 마을의 파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토벌대의 주민학살이 명분상 빨갱이 소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빨갱이 또는 빨갱이가족’ 이냐, 아니면 ‘군·경이나 우익단체원 혹은 그 가족’ 이냐가 중요했다. 말 그대로 오순도순 살아가던 섬공동체에 ‘편을 가르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었다. 주민들은 ‘소수의 군·경 혹은 그 가족’ 편과, ‘절대다수의 빨갱이 또는 빨갱이가족’ 편으로 양분됐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다 보니 그 후 섬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다.⁶⁵⁾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80년대 후반 고조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4·3의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 1989년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서울의 제주사회문제협의회는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제주시민회관에서 추모제를 봉행했다.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 온 유족·시

65) 김창후, 「4·3 진상규명운동 50년사로 보는 4·3의 진실」, 『4·3과 역사』 11, 제주4·3연구소, 2011, 191쪽.

민단체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4·3특별법에 서명했다. 4·3 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2003년 10월 15일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됐다.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일환으로 4·3평화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었고, 2008년 3월 28일 제주시 봉개동에 4·3평화공원이 개관되었다. 2014년 3월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3월 24일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마침내 공포됐다.⁶⁶⁾

제주 4·3 사건은 해방기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 상황에서 변방 제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미군정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는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운동으로, 경찰과 군의 진압과정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인권 저항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⁶⁷⁾

이 단원은 비록 교과서에 서술되어있는 분량이 적지만, 제주도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1차시를 내어 주제적 접근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은 본 단원에 대한 수업지도안(예시)이다.

66)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바로알기』, 제주4·3평화재단, 2016.

67) 현길언, 「제주 근, 현대사에 대한 성찰적 인식-저항사에서 수난사로」, 『제주도연구』 38, 2012, 46쪽.

<표 10> 수업지도안(예시)

단 원	Ⅲ. 대한민국의 발전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학 년	3학년
		차 시	3/9
		수업형태	강의식 수업, 토론수업, 영상자료수업
학습목표	1.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단 계	교 수 - 학 습 활 동		수업자료 및 방법
도 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출석 확인 전시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5광복 이후 정부수립을 위한 과정 전개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 통일 정부를 위한 노력 수업주제와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주제 :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경험, 지식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교과서와 연계해서 학습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전 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4·3 사건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제주도의 상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 직후에 일본군 철수와 외지에 나가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변동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의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 1947년 3·1절 발표사건으로 민심 악화 제주 4·3 사건의 경과와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 시작 11월 17일에 제주도 전역에 대한 계엄령 선포 1948년 12월 31일 계엄령 해제-주민 하산 1949년 6월 무장대 총책임 이덕구 사살됨 6·25전쟁이 발발 →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처형(약 3,000명 추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4·3사건은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사건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만 4028명으로 집계되었지만,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 상황과 연결지어 제주의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배경을 설명한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설명한다.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에게 대해 설명한다. 이후의 도민의 노력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영상을 시청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감상평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사과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 • 영상시청 및 감상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지슬' 편집본 (5분) - 감상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 및 토론 	
정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 • 제주 4·3 사건 관련 유적학습 안내 • 다음 차시 예고 • 수업 마무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의 사건들을 정리하며 과정과 의의를 강조한다. • 보충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유적에 대해 소개한다. (4·3 평화공원, 백조일손지묘 등)

8) 역사부도의 활용

역사부도는 역사 수업을 위한 보조 교과서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즉, 역사부도는 역사부도 안에 담겨진 역사지도, 역사연표, 통계, 도표, 그림 및 사진, 사료 등을 통하여 교과서를 보충하여 학생들의 정보의 수집, 처리, 의사사통, 발견 및 탐구능력, 역사적 사고력 등의 역사적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⁸⁾

교과서와 함께 역사부도를 활용해서 보다 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 중학교 역사부도 5종의 내용 중에서 제주와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와 삽화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비상교육은 백제의 전성시기(4세기)를 지도로 설명하면서 탐라가 복속(498)되었다는 표기를 했다. 교학사는 조선시대 서원의 분포를 나타내면서 제주의 굴림서원을 표기하였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제주에 있었던 굴림서원과 오현, 유배문화 등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금성출판사는 조선시대 농민의 저항 및 봉기에 대한 내용에서 흥경래의 난(1811), 진주농민봉기(1862) 등과 같은 크기로 제주농민봉기(1862)를 표기하였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주 농민의 저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일본이 각 지역에 군수 기지화를 했던 곳을 표시하면서 제

68) 이소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부도 활용방안 - 고등학교 한국사 근대사 내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7쪽.

주도 포함되었다.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군사용 비행기의 연료로 쓰기 위한 주정을 만들던 공장을 세웠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표 11> 중학교 『역사부도』의 삽화 및 그림

출판사	삽화, 그림 및 내용
비상교육 21쪽	
교학사 41쪽	
금성출판사 70쪽	



2. 제주지역사를 활용한 답사 및 현장수업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원 등의 자료를 교육 자료로 이용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일반적 방법은 현장체험을 병행한 해설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호기심을 갖게 한 후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예컨대 자발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현장의 경험과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스스로 생각한 바를 표현하고 토론함으로써 지역사에 대한 생각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⁶⁹⁾ 현장체험의 방법으로는 답사반 운영(문화유산 답사반, 향토조사반 등), 답사 형식을 띤 소풍,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정규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현장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계획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다.

69) 임호민, 『지역사 자원의 교육자료 활용방안 탐색』, 서경문화사, 2009, 16쪽.

<표 12> 중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⁷⁰⁾

구분		1~3학년
교 과 (<u>균</u>)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시간 수		3,366

위 표를 보면 교과시간을 제외하고 현장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다. 중학교 3년 과정에서 306시간이 배당되었으므로 한 학년당 102시간이고 34주를 기준으로 나누면 일주일에 3시간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활동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량적으로 시간을 병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장답사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모든 활동시간에 현장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사 전 사전 지식학습 — 현장답사 — 답사 후 보고서 작성 및 발표’의 순서로 교내와 교외의 활동을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답사 전에는 답사지와 관련된 기초적인 역사 지식을 습득하고 학생 스스로 답사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답사 전 준비 작업인 자료집을 제작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답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각각 설명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답사가 끝난 후에는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발표수

70) ① 교과(균)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③ 학년균 및 교과(균)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업을 진행하면서 교과연계활동도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실제 답사활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구성한 답사활동 연간 계획이다.

<표 13> 답사활동 연간 계획(예시)⁷¹⁾

회차	날짜	답사지역	주요 내용
1	3. 30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지역사 전체 개관
2	4. 3	제주 4·3 평화공원	제주 4·3 사건과 화해의 노력
3	5. 25	제주 빌레못, 고산리, 삼양동 유적	제주의 선사시대
4	7. 20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환해장성	삼별초의 항쟁과 고려시대 제주
5	9. 28	유배문화(추사유배지, 오현단 등)	유배의 섬 제주로 건너온 유학자
6	11. 30	제주해녀박물관, 칠머리당굿보존회	물질 배왕 누· 음주지 아니하· ㄴ다
7	12. 21	전체 총평과 답사 후기 제출	보고서 또는 탐방기 제작

답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 ① 계절적 특징을 감안하여 답사 계획을 편성한다.
- ② 제주 지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위하여 국립제주박물관 등의 공공기관 이용을 우선적으로 한다.
- ③ 연대기적 방법을 활용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답사지역에 대한 자료집을 학생과 함께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답사 후기를 작성하여 전체 답사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답사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⑥ 답사 지역 중 인상 깊은 유적을 심화학습에 활용하고 역사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답사가 끝나면 단순하게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고서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표는 각 답사활동의 답사보고서이다.

71) 답사 날짜의 예시는 내년 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첫 번째 답사에서 전체 지역사에 대한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전 예비지식을 확장을 도울 수 있도록 국립제주박물관으로 정하였다. 두 번째는 시의 적절성으로 4월 3일에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이후에는 교과서 단원별로 전체 역사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사시대유적, 향몽유적, 유배문화지, 해녀박물관 등의 순서로 계획하였다.

<표 13> 답사보고서(예시)

답사 일시	2018년 3월 30일
답사 주제	제주의 전체사 알아보기
답사 장소	국립제주박물관
답사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항이 내려다보이는 사라봉공원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공항과의 거리는 차로 20분 남짓이다. 2001년 개관하였으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시·보존·연구하는 고고·역사박물관이다. •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야외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설내에서는 상설체험코너(보고 만드는 체험세상)를 운영하고 있어 대동여지도 중 제주도 및 세한도 목판인쇄를 비롯한 고구려·백제·신라의 문화재를 탁본해 볼 수 있다. 체험은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체험에 필요한 한지는 뮤지엄숍에서 판매하고 있다.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이 매우 길게 되어 있으므로 답사에 필요한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 전체 인원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필요에 따라 교사가 인솔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전 정보와 습득 정보가 맞는지 메모를 권장한다.
답사 일시	2018년 4월 3일
답사 주제	제주4·3사건과 화해의 노력
답사 장소	제주4·3평화공원 일대
답사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공원은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하였으며 제주4·3사건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다. 공원 안에는 제주4·3평화기념관, 위령제단, 위령탑, 봉안관 등이 있다. 위령제단은 연중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해 참배를 진행하는 곳이며, 그들을 모시고 있는 위패봉안실이 따로 마련되어있다. 봉안관은 4·3유해발굴사업시기에 발굴된 396기의 유해 봉안이 있는데 각 비원에는 희생자의 성명과 성별, 당시 연령 등을 기록해 두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총 6개의 특별 전시관이 있다. 제1관에서는 주민들의 피신처로 활용되었다는 천연동굴을 주제로 한 역사관이 있으며, 제2관에서는 해방과 좌절이라는 주제로 해방 후 3·1절 기념행사에서 사망한 6명의 민간인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제3관에서는 무장봉기와 분단 거부라는 주제로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무장봉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제4관에서는 학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5관과 6관에서는 진상 규명 운동으로 상처를 극복해내는 과정과 관람 후의 소감문이 걸려 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사건은 제주 전역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현대사의 흐름을 확인하도록 한다. • 기록관을 우선 살펴본 후 공원 내의 희생자 묘역, 각명비, 기념물 등을 차례로 탐방하고, 분향할 수 있도록 한다.
답사 일시	2018년 5월 25일
답사 주제	제주의 선사시대
답사 장소	애월읍 빌레못 동굴,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답사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레못 동굴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은 어음리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동굴 주위에 두 개의 연못이 있어서, 평평한 암반을 뜻하는 빌레라는 제주도 말과 연못의 못이 합쳐져 '빌레못'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동굴의 총길이는 11,749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미로가 매우 많다. 화산활동에 의해 7~8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안에는 높이 28cm의 규산주와 길이 7m, 높이 2.5m의 공모양으로 굳은 용암이 있다. 땅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높이 68cm의 용암석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이다. 또한 동굴 벽면에는 용암이 냉각되면서 밀어내려 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은 세계적인 용암동굴로서 동굴이 만들어질 때의 흔적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고, 대륙에서 서식하는 황금곰의 화석이 발견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고산리 유적

	<p>고산리 자구내의 해안가 남쪽 대지상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제주도 해안지역에서 보기 드문 너른 들판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현재 밭과 논이 크게 발달되어 있다. 속칭 '한장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적의 북서쪽으로는 해발 148m의 당산봉이라고 하는 바위산이, 남동쪽으로는 해발 65m의 수월봉이라고 하여 오름이 해안절벽 끝에 자리잡고 있다. 1988년과 1990년에 걸쳐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용기문토기와 석촉 등의 석기가 채집되었다. 1988년 유적을 지나는 해안관광도로 확장공사 때 구제밭굴과 1996년 정식밭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유적에는 집터나 성격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구덩이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1994년에 조사된 구덩이 하나는 길이 2m, 폭 1m, 깊이 50cm의 장방형 유구로 검게 탄 재층이 많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양동 유적 <p>제주 삼양동 유적은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의 해안평탄대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마을 유적으로, 한반도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인 동시에 제주지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수용단계(기원전 5~1세기)의 취락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임이 인정되어 지난 1999년 11월15일 사적 제416호로 지정되었다.</p>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시대 제주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찾는 작업이므로, 현대의 제주인과 연관성을 설명할 때 주의를 요한다. • 유적이 모두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동에 주의가 필요하며, 각 유적에 대한 전문연구자의 안내를 요청하도록 한다.
<p>답사 일시</p>	<p>2018년 7월 20일</p>
<p>답사 주제</p>	<p>삼별초의 항쟁과 고려시대 제주</p>
<p>답사 장소</p>	<p>항파두리 토성, 곤을동 환해장성 등</p>
<p>답사지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파두리 토성 <p>국가사적 제396호며, 몽골의 침입시 조국을 지키고자 꺾기한 삼별초가 최후까지 항전한 유서 깊은 곳으로, 국가사적 제396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시관과 기념비, 토성이 남아 있으며 주변에는 김통정 장군이 뛰어내린 발자국에서 솟아나는</p>

	<p>물이라는 장수물이 있다.</p> <p>1977년 정부는 7월 21일에 성곽일부의 보수와 순의비 건립을 착공, 1978년 6월 준공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을동 환해장성 <p>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해안선을 따라가며 성을 쌓았는데 이를 환해장성이라 한다. 현재 성벽이 남아 있는 곳으로는 온평리, 행원리, 한동리, 동복리, 북촌리, 애월리, 고내리 등 14곳이 있다. 김상헌이 지은 『남사록』에는 환해장성을 일러 '탐라의 만리장성'이라 기록되어 있다.</p> <p>현재 남아 있는 곤을동 환해장성의 성벽 길이는 약 140m이다. 성벽은 바깥쪽으로 배가 부른 형태로, 성 위에는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여장이 있다.</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파두리 토성은 발굴 중에 있으므로, 발굴전문가의 설명을 사전에 요청한다. • 곤을동 환해장성의 위치가 바닷가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접근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화북 환해장성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답사 일시	2018년 9월 28일
답사 주제	유배의 섬 제주로 건너온 유학자
답사 장소	추사적거지, 오현단 등
답사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사적거지 <p>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추사적거지'는 조선 헌종 6년에 권력싸움에서 밀려나 제주도로 유배된 추사 김정희가 9년 동안 적거하던 곳이다. 2007년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87호로 지정되었다.</p> <p>김정희의 글씨와 그림의 복제품을 전시해놓은 추사기념관은 김정희의 세한도를 모티브로 하여 지어졌다. 김정희가 머물러 살던 초가도 있는데, 이는 1948년 제주도 4·3사건 때 불타버리고 빈터만 남았다가 1984년에 복원된 것이다.</p> <p>이곳에 머물면서 김정희는 '추사체'를 완성하였고, 국보 제180호인 '완당세한도' 또한 이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나온 서화이다. 제주도의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치기도 하는 등 제주에 있으면서 다양한 업적을 남긴 김정희를 기리기 위해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도 추사적거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현단 제주도 기념물 제 1호로 지정된 이곳은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어사로 부임하여 이 지방 교학 발전에 공헌한 다섯 분을 배향했던 옛 터이다. 오현은 1520년(중종 15년)에 유배된 충암 김정, 1534(중종 29년)에 목사로 부임했던 규암 송인수, 1601년(선조 34년)에 안무사로 왔던 청음 김상헌, 1612년(광해군 6년)에 유배된 동계 정온과 1689년(숙종 15년)에 유배된 우암 송시열 등 다섯 분이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유배형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유배 온 유학자와 중요한 역사 인물을 소개한다.(광해군, 송시열, 김정 등) • 제주에 뿌리 내린 성리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들이 제주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읍성 내의 유허비 등을 탐방하도록 안내한다.
답사 일시	2018년 11월 30일
답사 주제	물질 배왕 능 주지 아니한다
답사 장소	제주해녀박물관, 칠머리당굿보존회
답사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은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해 있다. 기원전부터의 역사를 가진 제주의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해양, 어촌, 민속, 어업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안팎의 전시물들은 모두 해녀들이 기부한 것이다. 전시관 안에는 실제 해녀의 집도 기부 받아 옮겨와 있으며, 음식문화와 양육, 반어반농, 영등굿 문화 등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앞의 정원은 해녀항일운동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항일운동인 1932년 1월 시위에 참여한 해녀들의 2차 집결지였다. 그 곳에 해녀 항일 운동 정신을 기리고자 제주해녀항일운동비가 세워져 있어 제주 여성의 삶에 대한 강인함을 알 수 있다. • 칠머리당굿보존회 칠머리당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매년 음력 2월 1일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2월 14일에 영등송별제를 하는데, 모두 무당굿으로 벌인다.

	<p>칠머리당은 본래 칠머리(건입동의 속칭)라는 곳에 있었는데, 시가지 확장으로 지금은 사라봉 기슭에 옮겨져 있다. 제일(祭日) 아침이 되면 선주회장과 동장이 차린 제물을 당으로 옮겨 다 도젯상을 차리고, 각 가호에서는 개인축원용 제물을 준비하여 당으로 모인다.</p> <p>다른 지역에도 영등신앙은 있지만 주로 개인신앙의례로 되어 있는데, 칠머리당곳은 영등신앙이 촌락신앙과 융화되어 마을 곳으로 치러지는 데 그 특색이 있다.</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해녀들의 강인한 삶, 학교를 세운 공로, 해녀항일운동 등에 대한 역사와 생활사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인터뷰를 유도하여 해녀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예시들은 답사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될 내용이자, 활동 영역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하겠지만, 제주의 선사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엮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1년의 현장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업 보고 겪은 사례들과 인터뷰 기사들을 정리하여 보고서 또는 탐방기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물의 생산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하고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고력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 이들 주제 외에도 분야사 중심의 답사나 탐방도 기획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옹기와 같은 생생문화재⁷²⁾ 탐방이나 밭담, 잣담, 산담, 원담과 같은 돌문화 탐방을 비롯하여 제주의 노동요, 굿당, 신화 등과 같은 역사, 민속, 문화의 장르별 접근이 가능하다.⁷³⁾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전체 중앙사의 흐름과 대조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는 새로운 역사수업의 개발은 그동안의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체험학습에 직접 닿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2) 생생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재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공연, 체험, 답사, 교육, 축제 등 오감을 즐겁게 하고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2017년에는 전국 120개의 문화재가 선정되었는데 제주도는 ‘탐라 명승에서 남극 노인성을 보다’, ‘제주성읍마을 정의현감 행차 재연 및 전통민속 재연, 민요공연’, ‘제주섬 방어유적 생생체험 '봉수씨 연대기'', ‘혼디모영 노랑굴에 흠뻑지어 볶주!’, ‘神人同樂의 바람축제 영등할망 바람질 걷기’등 6개의 주제가 선정되어 시행되었다.

73)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 49, 탐라문화연구원, 2015.

IV. 결 론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학생들은 늘 역사 과목을 학습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는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수업시간에 함께 배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교과서에서 제주지역사와 관련된 내용 서술을 분석하고 지역사 학습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실제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I장에서는 중등 사회과(역사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의 교육목표와 교육활동을 비교하고 각 교육과정이 가지는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변천에 반영된 지역사 학습에 관한 내용도 검토하였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과정의 방향도 바뀌고 그에 따라 교과서의 편제, 수업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학습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

각 교육과정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기존의 위로부터의 교육과정,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비판을 받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교육과정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교원들이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과목을 정치·경제·사회·문화로 나누어 영역별 분류사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었다. 또한 학습장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교육과정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각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다. 간단히 살펴보면 학년군·교과군을 도입하여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증대하였고, 체험학습의 강조, 창의적 사고 증진에 관한 것들이 있다.

역사과에서는 국정교과서의 발간과 폐기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제정되는 등 최근 들어 역사과목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사 학습에

대한 논의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아직 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방침에서 역사적 사고력, 종합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방법에서 지역사 학습은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미했다. 기본적인 교육과정 구성이 바탕이 되어야 교과서의 편제,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구성, 교사의 수업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 학습에 대한 내용이 국가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본)에서 제주사 서술을 분석했다. 먼저 중학교 『역사1』, 『역사2』교과서에서 제주와 관련된 서술 분량의 배정을 살펴보았다. 『역사1』의 서술 분량은 9종 교과서 평균적으로 1%내외의 분량으로 3~6쪽 이내에서 서술되었다. 서술 내용으로 제주 선사시대 유적(빌레못, 고산리 등), 대몽항쟁과 관련한 삼별초의 항쟁에 대한 내용에서 제주가 등장하였고 이 밖에 삼국시대 탐라의 대외교류, 조선시대 제주향교 등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역사2』교과서의 제주관련 서술 내용은 대부분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전체분량의 0.4~0.7%의 비율을 보였다. 교과서마다 제주 4·3사건의 서술 분량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 두 문장으로 서술이 끝나는 교과서가 있는가하면 보충설명, 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심도 있게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에서 꼭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도민들이 참혹하게 고통을 당했다. 이는 교과서에서 더 많은 비율로 서술되어 전국적으로 제주 4·3사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한 제주 4·3사건의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론화하여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출판사 별로 제주와 관련된 서술 내용을 지도, 삽화, 그림을 첨부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 전체 수업시수가 편성된 상황에서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지역사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업시간에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사 학습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II장에서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사 내용을 정리하고 교과서 단원별로 수업을 진행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모둠 조사 발표수업, 플립러닝, 극화수업, 역사신문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 영상자료수업, 모둠별 현장학습, 주제수업 등이 있다. 특히 플립러닝이나 하브루타 수업은 최근 학생중심수업을 바탕으로 교과서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목받는 수업모형이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보조자로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 수업은 학생들이 만들어간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역사과목은 학생들이 분량이나 내용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 주제에 맞는 수업방식의 변화로 과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 4·3사건 내용에서는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1시간의 수업시수를 내어 주제적 접근 수업방식을 적용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고 영상, 사진 자료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교과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현장답사도 제안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체험학습, 현장학습의 중요성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의 시간을 활용하여 답사를 진행한다면 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 역사학습의 수업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역사수업의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역사과목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교과서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 외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보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시험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교과서와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 지역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역사의 내용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흥미를 돋우기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사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정리, 실제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육에서의 제주지역사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제주와 관련된 서술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것과 관련하여 가능한 교과서 내에서 서술 분량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선사시대유적, 삼별초, 제주 4·3사건 이외에도 제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교과서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탐구활동, 보충설명 등의 내용이 늘어나야 한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제주 4·3사건의 경우에는 보충 설명 없이 1~2줄의 단편적인 서술에 그친 교과서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주 지역사 교육이 매 단원마다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III장에서 각 단원별로 제주 지역사 내용과 연계한 수업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서술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같은 시기에 제주 사람들의 상황이나 연관 지을 수 있는 사건 등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보조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로써 연간 수업 계획을 구성할 때 지역사 학습 내용을 염두에 두고 대단원별로 1시간 혹은 각 연관 단원 시간의 5~10분 정도를 할애하여 꾸준한 지역사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학교·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은 교사의 열정과 의지로 진행된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수업방법은 모두 교과서만으로 학습할 수 없고 영상, 사진, 사료 등의 여러 가지 자료와 수업도구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 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안된다. 교재연구와 자료개발, 수업모형의 연구 등을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의미 있는 수업의 변화, 학교 수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지역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6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면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진학을 위한 과목의 하나로만 인식하지 않고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인식이 꼭 필요하다. 역사의 중요성이 바로 잡혀야 지역사 학습에 대한 당위성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저 서>

- 김봉옥, 『중보 제주통사』, 세림, 2000.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김준형 외,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2001.
- 김태웅 외, 『우리 역사, 어떻게 읽고 생각할까』, 아카넷, 2014.
- 김한중,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05.
- _____,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8.
-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해와 방법』, 삼지원, 1997.
- _____,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2.
- _____,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2009.
- _____,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동향』, 책과함께, 2011.
- 역사문화학회, 『지방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08.
- 이병승 외, 『쉽게 풀어 쓴 교육학』, 학지사, 2016.
-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 _____, 『제주 역사 기행』, 한계레신문사, 2004.
- 이현식, 『지역문화, 길을 묻다』, 소명, 2013.
- 임호민, 『지역사 자원의 교육자료 활용방안 탐색』, 서경문화사, 2009.
-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2008.
- _____,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휴머니스트, 2002.
- 전영준, 『역사교과교육론』, 제주대학교 사학과, 2016.
- 정기문 외, 『역사학의 성과와 역사교육의 방향』, 책과함께, 2013.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1996.
-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9.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바로알기』, 제주4·3평화재단, 2016.

<논 문>

강은실,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강을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 장성지역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고범석,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고안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고영호, 「아동의 흥미에 기초한 향토사 수업모형의 구안 및 적용 : 제주도 지역화 교과서의 향토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7.

고효숙, 「향토사학습의 내용조직과 학습방법 :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4.

고희주,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경민, 「역사교육에서 지역사 자료의 활용에 대한 연구 : 경기도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4.

김경수·김정률, 「남제주 사람 발자국 화석의 생성 연대」, 『한국지구과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한국지구과학회, 2006.

김경열, 「플립러닝이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김동익, 「고등학교 국사교육을 위한 태안 지역사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동전, 「문화의 시대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 한국소성가공학회논문집, 2010.

- 김란주, 「지역사 자료를 활용한 현대사 수업 :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10.
- 김상태, 「중학교 국사교육에서 충북 지역사 학습」,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김선도, 「의정부·양주 지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학교 지역사 교수학습 지도방안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김애경, 「고등학교 국사교육에서의 서울지역사 자료 활용방안 : 백제 한성시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 김연성, 「향토사 연구사적 검토와 향토사 교육방안 연구 : 중학교 국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1.
- 김일우, 「탐라와 몽골문화의 교류와 탐라사회의 변화」,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 김정희, 「중학교 국사 교육과 지역사 학습 :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2010.
- 김창후, 「4·3 진상규명운동 50년사로 보는 4·3의 진실」, 『4·3과 역사』 11, 제주 4·3연구소, 2011.
- 도윤지,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3.
- 명정혜, 「제7차 교육과정의 ‘지역화교육’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 근대 목포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문은아,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지역화 학습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주민속촌박물관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 박재후, 「교육과정 개편과 국사교육의 변화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서윤주, 「하브루타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과수업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 석병배, 「초등학교에서 지역사 자료로 역사하기 :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송춘영, 「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 안형주, 「중학교 국사교육의 향토사학습 지도방안 : 전주 지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이재우, 「고양시 향토교육의 학습 방안 : 중학교 국사수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인영찬, 「보령지역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고등학교 역사교육 방안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장세영, 「중학교 국사교육에서 지역사 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 강동·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 장재훈,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 : 초등학교의 향토사 교육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 49, 탐라문화연구원, 2015.
- _____, 「삼별초의 항과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_____, 「文獻과 考古資料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역사와 실학』 59, 역사실학회, 2016.
- _____, 「2009교육과정과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여몽교류사 서술 분석」, 『탐라문화』 54, 탐라문화연구원, 2017.
- 정덕용, 「불교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사학습 방안연구 : 충남지역의 탑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정선영, 「이스라엘 하브루타 원리에 기초한 온라인 토론활동이 토론수행기술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 정수련,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연구 :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조상제,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교육」, 『역사교육』 68, 1998.
- 최난숙, 「향토사 자료를 활용한 중학교 국사 수업 방안 연구 : 경기도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 최형지, 「고등학교 극화수업의 적용과 역사교육적 효과 : 격동의 시대(1894년~1896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 한은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 한지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한태국, 「제주지역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개선방안 :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라대학교 석사논문, 2002.
- 황선희, 「고등학교 국사교육에서 지역사 학습자료 활용방안 :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현길언, 「제주 근, 현대사에 대한 성찰적 인식-저항사에서 수난사로」, 『제주도 연구』 38, 2012.

<기타자료>

- 중학교 『역사1』, 『역사2』교과서 9종, 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본.
- 중학교 『역사부도』 5종, 2012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본.
- 이문기 외,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동아출판, 2012.
-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1992.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1997.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12. 1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14-2호,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14.
- 교육부 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09.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역사』, 2016.
- 문화재청 보도자료, 「제주도 남제주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 산출지 천연기념물 지정」, 2005.05.07.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Jeju Local History Class under the Middle School History Education Curriculum

Kang, Min-hui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lthough the interest in history education is growing more than ever before, the history subject taught in the field of education are still perceived as a memorization-oriented and a much burdened subject. One way to teach history to students more effectively and enhance their interest in it is by teaching a local history that enables them to learn the history of the area close to their life circle and culture easily accessible to them. However, as students are taking history class in schools using the identical textbook regardless of the area they live in and history classes are focused on preparing for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learn the contents of the local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local history class under the history education curriculum in middle school, to analyze the description and amount of contents regarding Jeju's local history included in the present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to suggest a teaching method for the students' learning of Jeju's local history during class and field experience. The goals of education curriculums and ideal human characters have changed over time. In particular, the trend of globalization has been highlighted in terms of the recognition of history. It is a matter for regret that the contents regarding the local history are not taking up a great deal of weight and even if the local history is mentioned, it is mentioned without a specific purpose or goal.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various histories and cultures, it is desirable to learn the contents of the local history first.

The current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do not include much description related to Jeju. The major description related to Jeju includes prehistoric ruins, the Resistance of Sambyeolcho, and the April 3rd Jeju Uprising. The amount and aspect of their description of the same topic differed by textbook.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students in Jeju will have far fewer opportunities to learn the local history they are experiencing if they take the history class with the current textbooks alone. Regarding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various classe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opic as learning methods linked with textbooks such as group survey and presentation class, flipped learning, dramatization in class, history newspaper making, Havruta learning, class using video data, field trip, subject exploration and discussion class, and class using historical attached maps. The interest in the learning of local history can be enhanced by field exploration other than class using textbook.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What is the best way to make students who have lost interest in history class become interested in history class and history subject?' It is concluded that, in order to stop depending on the textbook-oriented class only, it is necessary to have local history class, which can enhance students' interest and allow students to learn beyond the contents of textbook.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amount of description of Jeju in textbooks and to link a teaching method with the

textbooks so that Jej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an be broadly utilized as educational materials. Moreover, schools, teachers and communities should change to recognize the need for the learning of local history, which can lead to more effective learning of students.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학생들의 지역사 학습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생님의 진솔하신 응답이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강민희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30세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교사 경력은?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년~19년 ④ 20년 이상
4. 선생님께서는 제주 지역사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4-1번 문항으로)
② 조금 필요하다. (4-1번 문항으로)
③ 필요 없다. (4-2번 문항으로)
④ 전혀 필요 없다. (4-2번 문항으로)
- 4-1. 제주 지역사 학습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역사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② 애향심을 높일 수 있다.
③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④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⑤ 기 타 ()

4-2. 제주 지역사 학습이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입시와 큰 관계가 없는 학습내용
- ② 학생들의 제주 지역사에 대한 관심 부족
- ③ 역사 수업시간의 부족
- ④ 제주지역사 관련 자료의 부족
- ⑤ 교사의 제주지역사에 대한 관심 부족

5.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제주 지역사 학습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다. (5-1번 문항으로)
- ② 하고 있지 않다. (6번 문항으로)

5-1. 선생님의 학교에는 제주 지역사 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① 있다. ()
- ② 없다.

5-2. 제주 지역사 학습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① 교과서 수업 중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식
- ② 지역사에 관한 수업시간을 따로 마련
- ③ 교과 활동 외 시간을 활용(동아리 등)
- ④ 기타 ()

5-3. 제주 지역사 학습에 주로 사용하시는 학습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 ① 사진자료 ② 영상자료 ③ 유인물자료 ④ 기타 ()

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 지역사 학습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입시 위주의 교육
- ② 지역사 자료의 부재
- ③ 수업시간의 부족
- ④ 교사와 학생의 관심 부족
- ⑤ 기타 ()

7. 지역사 학습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십시오.